

8일 Market Index			
코스피	2561.15	코스닥	743.38
	(-3.48)		(+9.86)
금리 (미국 9년)	2.889	환율 (원/달러)	1397.00
	(-0.033)		(+0.40)

‘새것 아닌 새것 같은’ 혁신… 식품업계, 스피노프 바람

〈오리지널 작품의 변이판〉

식품업계 생존전략

식품업계가 불황 타파를 위해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구구조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한편, 한정된 내수시장과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몸집을 빠르게 불리고 있는 것.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로봇 등 기술을 식품 생산과정에 투입해 비용 절감에 나서기도 했다. 메트로경제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식품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격일로 발행하는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上〉 유연성 강화

농심 ‘깡’ 시리즈 품질 대란 오리온, 꼬북칩 품목 확대 등 스피노프로 기존 상품 확장 제과, 신뢰도 기반 성장 모색

식품업계는 불황기를 슬기롭게 견뎌내기 위해 상품과 브랜드를 유연하게 확장하는 ‘스핀 오프(spin-off)’ 전략을 펼치고 있다.

스핀오프는 흔히 대중문화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특정 부분을 독립된 내용으로 분리 및 확장해 또 다른 콘텐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작품의 캐릭터나 세계관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스피노프가



尹대통령,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대중문화를 넘어 유통업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기존 제품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맛이나 모양, 식감 등에 변화를 주는 식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심의 ‘깡’ 시리즈가 있다. 농심이 지난해 ‘새우깡’의 후속작으로 선보인 ‘떡태깡’은 출시 1주일만에 100만봉 넘게 팔렸으며 품질 대란을 일으키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오리온은 지난 9월 ‘꼬북칩 카라멜 팝콘맛’을 출시했다. 2017년 첫선을 보인 꼬북칩은 미국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신제품으로 선보인 꼬북칩 카라멜 팝콘맛은 겹당 두께를 세밀하게

조정해 캐러멜로 감싸 기존 폭신한 팝콘에서 느낄 수 없는 빠삭한 식감을 완성했다.

1982년 출시한 비스킷 ‘다이제’도 건강한 맛을 중요시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변화를 줬다. 오리온은 백미 대비 칼슘은 8배, 식이섬유는 4배 풍부한 오트를 넣고 통밀을 더한 ‘오트 다이제’를 선보였다.

오리온만의 그래놀라 제조 기술력으로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즐길 수 있는 수제 쿠키의 맛과 식감을 구현해 맛과 영양을 따지는 2030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과업계에서 스피노프 상품 출시가 활발한 이유는 제과사업의 성장성 둔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구조가 변하고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선호하면서 제과류가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수 제과 제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을 선보일 경우, 해당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국내 14세 미만 인구는 2020년 631만명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70년에는 28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년 인구가 감소하면 제과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더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범용인공지능 시대, 공존법 모색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오는 11월 20일(수) 오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공지능(AI)이 가속화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AI를 필두로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이 융합되며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거주환경과 노동주체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미래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AGI 시대의 공존법을 모색하고 산업과 기업에 일으킬 변화상을 공유합니다.

- ◆ 주제 :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 ◆ 일시 :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5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 ◆ 문의 :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기조강연 :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컴퓨터공학과 교수)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미래-우리의 대응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 강연 : 김현배 딥파인 대표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바라보는 XR시장 전망
하현석 큐빅 CTO
-AI 혁신을 위한 미래 데이터-합성데이터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A센터장(변호사)
-AI와 살아가야 하는 시대-활용과 노동시장의 전망

metro[®]

美 빅테크 혁신 빨라진다… 韓, 규제개혁·투자확대 필요

트럼프, AI혁신 저해 정책 비판 美빅테크 산업 규제완화 기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규제 완화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AI 정책 기조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 AI 기업들의 혁신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발빠

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핵심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혁신’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발표된 ‘AI 행정명령’을 “혁신을 저해하

는 불법 검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취임 즉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 개발·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요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반독점법 소송의 접근 방식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미 의회에서 추진되던 빅테크 규제법안 6개 중 5개가 이미 폐기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남은 1개 법안의 부활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일부 반독점 정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분할 문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수장들

도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미국의 미래가 다시 밝아졌다”고 기대감을 표했으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역시 “이보다 더 큰 기회를 가진 나라는 없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언급했다. 이외에도 샘 올트먼 오픈 AI CEO, 팀 쿡 애플 CEO 등도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

부의 AI 규제 완화가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며 민·관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삼성KPMG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국 기업 중심으로 미국 AI 산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에 AI 서비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AI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 기업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민주, 국힘 ‘특별감찰관’ 의총 예고에 “특검법 수용이 우선” /사진 뉴시스
- ▲ 트럼프 귀환에 북미대화 시간문제… 고민 깊어지는 한국

- ▲ 여, 野 장외집회에 “이재명 구하기 세 물이… 무죄로 바꾸려 무력 시위”
- ▲ 서울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 설립 잇따르자… 인근 신고가 ‘속출’



- ▲ 오세훈, ‘방산수출’ 국회 동의 추진에 “민주당 입법독재, 도 넘어” /사진 뉴시스
- ▲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

중소형 증권사 ‘실적 악화’ 존립 위기감… 대형사는 ‘날개’

한투·KB·NH·하나 등 대형사
3분기 영업이익률 두자릿수 증가
BNK·iM증권, 당기순손실 기록

“외화증권 중개 수수료 25% 달해
중소형사, M&A 매물 나올수도”

최근 몇 년간 수익 구조 악화에 시달리던 중소형 증권사들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있고, 기업금융(IB) 부문에서도 대형 증권사의 시장잡식이 가속화하면서 중소형사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들이 올들어 3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보인 것과 달리 중소형 증권사는 여전히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B NK투자증권과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은 3분기에 각각 45억원, 512억원의 영업손실에 37억원, 346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IBK투자증권의 경우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21억원으로 전년

동기(602억원)대비 47% 감소했다. 반면 대형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383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1% 증가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각각 2388억원, 188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56%, 59% 늘었다. 이밖에 지난해 3분기 5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하나증권도 35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

금리하락에 따른 IB 부문 실적 개선으로 대형 증권사의 3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반면 부동산 부실자산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는 여전히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규모별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중 유의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는 11%에 그친 반면, 자기자본 1조~4조원의 중대형사는 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1조원 미만의 중소형사는 23% 수준이다. 이에 따라 3분기에 BNK투자증권은 303억원, iM증권은 614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



메트로미디어 ‘감사리더스 씨밋 마닐라포럼’

메트로미디어 주최 ‘감사리더스 씨밋 마닐라포럼’이 지난 7일 필리핀 마닐라시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양국 금융권 고위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로널드 덩팔란 필리핀 재무부 차관의 필리핀 경제발전 현황과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및 외자유치 정책에 대한 강연을 포함,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덩팔란 필리핀 재무부차관, 스텔라 로레노 고문, 이순우 메트로미디어 언론윤리위원장, 이정희 메트로미디어 상무, 박만환 RMR그룹 고문(왼쪽 7번째 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야 했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부동산금융의 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부채자본시장(DCM)과 주식자본시장(ECM) 등 전통 I B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단기간 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에는 어렵다는 분

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대형사들의 지위가 공고하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 한 연구원은 “IPO, ECM, DCM 같은 전통적 IB 영역이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도 “중소형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시장 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충당금을 많이 쌓고 있는 데다 사업 기반이 부족해 다른 분야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통 IB 부문에 집중하는 일부 중소형사도 전반적인 시장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형사에 점유율을 내주면서 수익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든 점도 중소형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 증권사 중심의 해외 주식 거래 쏠림 현상도 지속되면서 중소형사들의 존립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8년 4%

에 불과했던 외화증권 중개 수수료 비중은 최근 25%까지 상승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 해외주식시장에서 고객자산가 등 차별화된 리테일 고객층을 보유한 대형사들의 점유율 방어 능력이 돋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증권사들은 희망퇴직을 받고 영업점 수를 줄이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으나 당장 수익성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초기에는 자본 적정성이나 재무 안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이제는 사업 안정성 및 수익 기반의 지속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사들이 시장 주도권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생존 위기에 몰린 중소형 증권사들이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해외 프로그램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융합형 교육

부산외대 입학

실리콘밸리 취업

국내 **2개**뿐인 외국어 특성화 대학.
외국어 전공 **17개** 운영.
52개 전공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
학생 희망 전공 **100%** 보장
해외 교류 협정 대학 **479개**.

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비전은
글로벌 무대의 중심을 향합니다.**

농심 ‘신라면 톰바’ 연내 주요국에 수출

» 1면 ‘식품업계 생존전략’서 계속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과업체가 장수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기존 상품의 맛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히트 상품이 가능할까’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수입 제과류도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소비자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철저히 파악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제품을 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심은 ‘모디슈머(소비자 취향에 따라 레시피를 조합하는 것)’ 열풍에 따른 스핀오프 라면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만난 ‘짜파구리’, 지난 9월 출시한 ‘신라면 톰바’가 주인공이다.

‘신라면 톰바’ 용기면은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320만 개를 돌파하면서 입소문을 탔으며, 용기면의 인기로 힘입어 지난달에는 ‘신라면 톰바’ 봉지면도 출시했다. 봉지면도 출시 2주일 만에 250만개가 판매되며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농심은 ‘신라면’ 등 기존 제품의 해

외 흥행에 이어 신제품 ‘신라면 톰바’의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농심은 해외 현지 공장 생산과 국내 수출을 병행하며 올해 말부터 주요 국가 유통채널을 통해 ‘신라면 톰바’를 선보일 계획이다.

하림은 편의점 CU와 손잡고 ‘용가리’ 치킨 너겟 출시 25주년을 맞아 스핀오프 상품을 선보였다. 용가리 특유의 모양을 살린 너겟과 도시락, 튀김꼬치, 반려견 전용 쿠키 등이다. 튀김꼬치의 경우 크기를 기존 용가리 제품 대비 8배 가량 키웠다. 학창시절 도시락 반찬이나 간식으로 용가리를 즐겨 먹었던 2030세대가 그 시절을 추억하며 술안주로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다.

이은희 교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모디슈머 상품 출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재 2030세대 소비자들은 새로운 맛과 재미를 추구하고, 시도도 많이 한다. 신제품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임원중시·성과급 등 곳곳 구멍... ‘인재경영’ 되돌아보아야

위기의 삼성, **골든타임** 잡아라

〈下〉사내문화·보상체계

20대 직원 줄고 40대 이상 증가
경쟁사에 비해 성과급 지급 저조
인재 유출 심각... 기술혁신 정체

삼성전자의 젊은 인재들이 국내외로 빠르게 유출되면서 혁신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인재유출의 주요 원인은 삼성의 인력고령화와 경쟁사에 비해 2배 이상 적게 받도록 설계된 성과급 산정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늘어난 임원진들의 보여주기식 성과와 불합리한 성과급이 동기부여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이에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핵심 인력들이 국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물론 글로벌 기업인 엔비디아 등으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보상체계에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쟁력 저하는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 가운데 40대 이상이 20대 이하 직원 수를 앞지를 정도로 사내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까지만 해도 20대 인력이 전체 인력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10년 만에 40대 이상 직원이 추월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20대 직원 수는 2017년



삼성전자 본사 앞 직원들의 모습.

/뉴스시

17만1877명, 2019년 12만4442명, 2021년 8만8911명, 2023년 7만2525명으로 줄었다. 반면 40대 이상 직원은 크게 늘었다. 2010년에 2만명대에 그쳤으나 2018년 5만2839명, 2020년 6만1878명, 2022년 7만5552명으로 늘었다.

간부급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7년 기준 일반 직원이 80%, 임원을 포함한 간부급은 10%대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간부급 비중이 30%를 넘어섬에 따라 작년에는 일반 직원이 전체 65%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는 삼성의 젊은 인재들이 유출을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특히 성과급 산정 기준은 인재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삼성의 성과급은 목표달성성장률(TAI), 연 1회 지급되는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연 1회 지급되는 초과 이익성과급(OPI) 지급 재원을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뜻하는데 이는 순이익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500억이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499억이라면 성과

급은 1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로 인해 삼성의 성과급 규모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비해 2배 이상 적게 책정되기도 한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재원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구분되며 이와 별도로 격려금을 지급한다.

이에 올 상반기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상반기 PI 성과급을 상한선인 월 기본급의 최대 15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 2회 PI와 연 1회 PS도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75%에 그쳤다.

채용 플랫폼 링크트인에 따르면 엔비디아 임직원 중 삼성전자 출신이 515명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에는 엔비디아 출신 직원이 약 270명에 불과하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직률은 TSMC보다 약 두 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경력 채용에도 삼성전자 출신 직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 5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은 지난달 18일 성명을 내고 “현재 OPI 제도는 회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삼성은 수평문화등 조직 쇄신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중희 삼성전자 DX 부문장(부회장)은 지난 1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사옥에서 타운홀 미팅 ‘DX 커넥트’를 주재하는 등 사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그는 “수평적 호칭 문화가 정착되고, 올해부터는 직급 표기도 없어진다”면서 “앞으로 부회장님 대신 JH라고 불러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장애인 날 이메일도 그의 이니셜 ‘JH’로 마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정부, 배달 생태계 손보나 중개수수료 법제화 가능성

배달앱-입점업체, 합의 지지부진
공정위 “최종 결렬시 후속방안 논의”

배달앱 입점업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부담완화를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약체’(이하 상생협약체)의 합의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상한을 아예 법으로 정하는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정부의 배달플랫폼에 대한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엄정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상생협약체는 지난 7일까지 100여일 동안 총 11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핵심 쟁점인 중개수수료 인하 합의에 사실상 실패했다.

마지막 회의에서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 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2위 업체인 쿠팡이츠도 같은 수준으로 낮출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쿠팡이츠는 2.0~9.5% 범위 차등수수료 부과안을 내 배달보다도 높은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약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4개 입점업체 단체는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

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이정희 상생협약체 위원장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의 상생방안을 제시하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생협약체는 11일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각각 개선된 상생안과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안을 다시 제시하라고 했다. 수수료율 인하 합의를 위한 최종 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이 입점업체 요구안은 물론 공익위원 중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특단의 상생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중개수수료 합의는 최종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약체 주무부처인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종 합의 결렬시 정부측 계획을 묻는 질문에 “최종 결렬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율 상한 입법에 대해선 “(입법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화생명 The 시그니처 암보험(무)

암 치료비
필요한 만큼
더 든든하게 보장

암보호시스템
예방부터 회복까지
더 세밀하게 보호

보장에 보호를 더해서
더 강력하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암 치료비를 보장하고
국내 유일의 Need 암보호시스템으로
암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암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한화생명 The 시그니처 암보험(무)을 만나보세요

한화생명 The 시그니처 암보험(무)

Need 암보호시스템 한화생명의 제휴사 Nee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암 진단 전, 중, 후에 걸쳐 고객님을 암으로부터 보호합니다

Need 암보호시스템은 한화생명 시그니처암보험 2.0,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 한화생명 The 시그니처 암보험,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 가입 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청약 시 암보호시스템 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제휴업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여야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이 유지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Need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Nee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Need에 있습니다. 암 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부터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또는 2년 이후 지급금의 25%(가입 후 18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한함) 또는 50%만 지급합니다. 본 상품은 비갱신형 또는 갱신형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또는 30년 만기 갱신 중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80세, 90세, 또는 100세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4-07058호 (2024-10-30 ~ 2025-10-29)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4-10-058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한화생명

美 대선·금리인하 호재… “비트코인, 이달 8만달러 가능성”

비트코인 연일 최고가 경신 중
트럼프 親 가상화폐 정책 영향에
美 대선일부터 10일까지 14% ↑
금리 인하로 투자자도 대거 유입
현물 ETF 유입에 9만달러 예상도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단기변동성은 나타나겠지만 이달 8만달러를 무난하게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7만64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는 장중 한때 7만7100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6일 7만5000달러



/뉴스시스

를, 하루 뒤에는 7만6000달러를 기록하면서 연일 상승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선일인 지난 5일(6만6900달러)부터 이날까지 비트코인은 14.2%(약 1만달러)나 급등했다.

비트코인 급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 공약한 친(親)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Never sell your bitcoin)"는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 집권 2기가 본격 시작 될 경우 금융 규제완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 개선, 미국채 발행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유동성 증가 등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준이 지난 9월에 이어 또 한 번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도 비트 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금리 하락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가상자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달 8만달러는 무난히 기록할 것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세에 따라 9만달러 기록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후 미국 증시에 상장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했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이달 8만달러 안착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물 ETF 유입에 따라 최대 9만달러도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지난 10월 ‘업토버’ (상승을 의미하는 업과 10월 옥토버의 합성어)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어 ‘트럼프 당선’ 당선 기대감과 실제 당선, 여기에 금리인하 효과가 더해져 상승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민승 코비트리서치센터장은 “대통령과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는 ‘레드 스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강력한 호재가 될 것”이라며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있던 해마다 4분기부터 다음 해까지의 상승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환율 상승에 원자재값도 들썩... 건설공사비 더 오를것”

건설산업 '건설시장' 전망

트럼프 공약, 장기적 경제성장 저해
해외 수주는 지역따라 희비 갈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를 앞두고 공사비가 더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환율 상승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 국내 물가도 들쭉이면서 금리인하를 늦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른 국내외 건설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시장에는 환율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공사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진 지난 6일 6.
5원 상승(원화까지 하락)했고, 당선이
확정된 7일에는 13.7원 오르며 급등세
를 보였다.

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철강 등 일부 수입품목의 원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산업 전반의 수입품에 대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공사비 하락 요인을 상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고,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상하원 장악에 따른 정책 추진은 1기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공약은 미국 내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비롯해 이민통제 강화, 친환경 정책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대외적으로는 관세 강화와 대(對)중국 강경 대응 등이다.

업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감세 및 친기업 정책과 정책 불확실성의 일부 완화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다만 장

기적으로는 무역장벽 강화로 인한 교역국의 보복관세, 수출기업의 타격과 고용 감소,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등에 따른 투자 위축, 이민자 감소로 인한 소비지출 약화 및 노동력 공급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의 경우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화 총 486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수혜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민관 협력을 통해 도로, 주택, 발전소 등 재건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대선에서 승리하면 러-우 전쟁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진영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해야만 무기 지원을 하는 종전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반면 이스라엘에 친화적인 중동 강경책은 중동 시장 규모가 큰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동 사태 확산에 대해 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중동 강경책을 예고했다. 중동 긴장도가 커질 경우 중동 국가의 신규 발주 감소와 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상향이 약화될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안상미 기자 smahn1@

The image is a promotional poster for the 28th PAJU Jangdan Soybean Festival. The background is a warm, textured orange-brown with subtle soybean motifs. The text is arranged in a clear, hierarchical manner. At the top left, there is a small logo with the text '시민중심' (Citizen Center) and '더 큰 파주' (Bigger Paju). The main title '제28회 파주 장단콩 축제' (28th Paju Jangdan Soybean Festival) is prominently displayed in large, bold Korean characters. To the right of the title, the English text 'The 28th PAJU Jangdan Soybean Festival' is written, followed by the dates '2024. 11/22(금)-24(일)' and the location '파주 임진각광장 및 평화누리 일원'. The PAJU logo is in the top right corner. Three stylized soybean pods are illustrated: one on the left, one in the center, and a large one on the right. The overall design is clean and modern, with a focus on the festival's theme.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에너지로 채우다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모든 곳이
우리의 에너지로 채워질 때까지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 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SK 엔텀

오는 15일 이재명 1심 선고

차기 대선 향방 좌우... 與野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재판 1심 선고
민주당, 실형 시 434억 반환해야
사법정의특위 출범 등으로 대응
한동훈, 재판부에 생중계 촉구
與, 민주당 장외집회 두고 ‘세몰이’

정치권이 오는 15일에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주목하고 있다. 차기 대권 유력 후보인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탐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받았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열흘 앞둔 지난 5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수사를 살펴보는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설득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받은 선거 관련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명운이 걸린 선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여당은 재판부에게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9일) 민주당의 두번째 장외집회를 두고 “집회의 명분은 특검 수용 촉구였지만, 실상은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구해보겠다는 ‘세몰이’였다”면서 “국회 안에선 검사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밖에선 집회로 대통령과 정권을 압박하며 이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폄하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즉시 가동”

경제·안보회의 주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따른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전에)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교 협상을 결정해야 되는 대통령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회의 목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가 아닌 지금 당장 준비가 필요하다는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또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준다”며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많이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 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미국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보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서예진 기자 syj@

與, 이탈표 우려에 ‘제3자 특검’ 목소리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상정 예정
특검 내용 등 與 협상 열려있어
한동훈, 통합·野 대결 중점 둘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관철시키려는 가운데, 일각에서 나오는 ‘제3자 특검’이 여당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제3자 특검은 특검 후보를 특정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등 정당과 관계 없는 주체가 추천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을 제외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한다는 방침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표결을 통해 재의결되려면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여당에서 최소8명의 김건희 특검법 찬성표가 나오면 법안은 재의결된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에 여당 의원들이 뿔뿔뿔 무쳐 재의결을 막아왔으나, 그 사이 당정관계가 악화해 재표결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의 이탈표 발생으로 특검안이 통과되느니 야당과 협상해 ‘제3자 특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 내 최다선이자 친한동훈(친한)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독소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계속 용산과 우리 당이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면 그 시점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안은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배제돼 있으나, 협상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검의 내용, 형식, 독소조항 등에 대해 여당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밝혀왔다.

다만, 한 대표가 당의 분열을 몰고 올 ‘제3자 특검법’ 추진보다 통합과 야당과의 대결에 중점을 둘 거라는 시각도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회견을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이 말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실에 추가 쇄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보조금 지원 가닥”

‘하이트칼라 이그젼션’ 조향도 발의

국민의힘이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주무 부처와 조율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통 정부 측에서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만 투자를 시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영업을 이익이 발생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투자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경쟁국의 대규모 재정 지원 사례처럼,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조율 과정을 임의규정을 통한 재정 지원으로 법안에 담기게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하이트칼라 이그젼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향도 넣어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 반도체특별법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신설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연 의원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안이 핵심인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약속 100호 어린이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희망이 처음 출발한
2019년 거제 1호 아주하나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의 꿈도 자라나고

드디어 2024년 봉화 100호 석포하나어린이집에
웃음이 하나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그 날까지
하나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지원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가족 목소리 위조... 보이스피싱 고도화로 피해액 2배 급증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줄었지만 평균 피해액 2배 늘어 1500만원 악성앱, 딥보이스, 큐싱 등 악용 피해자 상황 맞춰 수법 고도화 가족·지인 금전거래 응해선 안돼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평균 피해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공기관을 사칭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딥보이스(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등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민병덕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835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했던 1만733건 대비 2381건 감소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같은 기간 총 피해 금액은 127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19억원(49.1%) 늘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1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500만원으로 지난해 평균(800만원)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시스

이는 '악성 앱', '딥보이스', '큐싱(QR코드를 활용한 사기 웹사이트 접근 유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피해자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16%는 60대 이상 고령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지인이 갑작스러운 금전 거래를 요구하더라도 응해선 안된다. 인공지

능 기술 발달로 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딥보이스' 기술이 등장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금전 요청을 받는다면 즉시 응하지 말고, 다른 가족이나 지인 등 제 3자를 통한 확인을 거쳐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악성 앱을 통한 통화 탈취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확인 과정에는 가족이나 이웃 등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해야 한다.

또한 택배 안내, 공공기관 공문 등을 사칭한 문자·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악성 앱'은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통화 및 메시지 이력 등 개인정보

를 빼돌리고 원격 조작·통화 탈취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악성 앱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해선 안 되며, 신뢰할 수 없는 연락처로부터 수신한 문자나 URL에 연결하면 안 된다. 또한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안전 통화·문자 앱을 통해 문자 수신 시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각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지원하는 '악성 앱 탐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이체를 마쳤더라도 '계좌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구제도 가능한 만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즉각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노린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며 "금융·공공기관은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며, 가족·지인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전 요구를 받는다면 반드시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골프장 할인원하고 100만원 받으세요

신한카드가 할인원 100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다. 행사 기간 내 골프장 라운딩 그린피를 결제하고 행사에 응모한 고객 중 할인원을 기록한 고객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혜택은 선착순 10명에게 지급한다.

같은 기간 라운딩 당일 음식점과 주유 업종에서 결제한 고객 10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준다. 그린피와 음식점, 주유 업종을 모두 결제하면 당첨 확률이 2배 높아진다. 체크카드와 법인카드는 혜택에서 제외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 홈페이지나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대카드

최대 90% 할인혜택 'M100 페스타' 진행

현대카드가 자체 쇼핑몰에서 최대 90%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현대카드는 'M-MALL(M몰)'에서 'M100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상품 구매 시 M포인트를 최대 1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호텔과 고매, 모바일 이용권 등에는 포인트를 사용이 불가능하다. 매주 럭키드로우 행사를 진행한다. 금요일 낮 12시에 진행하며 뱅앤올룹슨 헤드폰, 아크테릭스 등산화 등을 1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코세페 할인·경품지급 수험생 응원 행사도

KB국민카드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응원 행사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수능 기간에 맞춰 할인 경품 지급 행사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2024코세페! 쇼핑하고 위시타워 받자' 행사를 펼친다. 추첨을 통해 LG 위시타워 및 스타일러 등을 지급한다. 추첨 기회는 100만원 이상 이용 시 1회 제공하며 100만원 초과 이용금액에서 50만원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추가 적용한다.

오는 28일까지 이마트에서 빼빼로와 김장채소, 가전 등 인기 품목을 즉시 할인한다. 이어 홈플러스에서는 27일까지 특정 품목 즉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달 14일까지는 '2025수험생을 위한 전국민 응원 프로젝트' 댓글 행사도 마련했다. KB페이 쇼핑 내 행사 페이지에서 응원 댓글을 작성한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하여 증근당건강 아임비타 이뿔샴 선물 세트를 증정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주거부터 호텔·쇼핑몰까지... '강북 핫플레이스' 기대

부동산 현장 르포

HDC현산 '서울원 아이파크'

강북 최대규모 신축, 교통호재 풍부
관광객 유치·현산 본사 이전 계획도
인근 품림아파트 시세 5억 이상 경증

최근 방문한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한창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는 '서울원' 프로젝트다.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뜻하는 서울원 부지는 약 15만㎡에 달한다. 이 안에 주거 공간부터 호텔, 쇼핑몰, 오피스까지 들어서면 반경 1km 안에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해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복합용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를 11월 중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7층, 6개동, 전용면적 59~244㎡ 공동주택 1856가구가 들어선다. 단지와 인접한 광운대역은 기존 1호선뿐만 아니라 6호선, 7호선도 이용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는 '서울원'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서울원 아이파크' 시공이 한창이다. 뒤에는 '한진한화그랑빌' 아파트가 보인다.

/전지원 기자

할 수 있다.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광운대역~강남(삼성역) 구간이 9분 만에 연결된다.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소를 하는 A씨는 "강북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원 아이파크의 경우 강북 최대규모 단지, 신축이란 장점은 당연하고 중랑천 지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강남까지 가는데 교통도 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원 아이파크 내 레지던스로 위

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5성급 메리어트 호텔과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까지 들어올 예정이다.

또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근처 장위동 '장위뉴타운 6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의 경우 분양가가 13억~14억원으로 책정됐다"며 "기준에 들어선 품림아파트 등이 8억~9억원으로 이미 5억원 이상 시세가 올라간 상태"라고 전했다.

관심도가 높은 상태여서 서울원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15억원까지도 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연쇄적 파급효과는 교통망을 따라 이동하며 교통허브 일대에서 발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5년간 아파트값이 30.1%나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기준 올해 지역별 거래량 상위 자치구에도 노원구(2892건)는 송파구(2995건) 다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규모 인프라 개선을 예고하는 개발 소식이 구체화하자, 광운대역 일대 주택시장 재평가도 한창이다. 광운대역에 이웃한 '한진한화그랑빌' 전용면적 114㎡는 9월에 10억9000만원으로 거래돼 올해 신고가를 썼다.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최고 9억 3000만원에 거래된 타입인데 1년도 되지 않아 1억6000만원이나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개발이 물꼬를 튼 만큼 주변 정비사업으로 개발 열기가 번지면서 새 단장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둘째 주 전국 10곳서 7670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7670가구(일반분양 593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서

구 마전동 '검단신도시푸르지오더파크', 경기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 시티한신더휴',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e편한세상당산리버파크', 경기 안

양시 호계동 '아크로베스티뉴', 경기 군포시 둔대동 '군포대야미디에트르스그니체'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1개동, 전용면적 84~150㎡, 총 1126가구 중 8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와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부성역(가

청, 2029년 예정) 개통 시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L이앤씨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아크로베스티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10개동, 총 1011가구 중 전용면적 39~84㎡, 3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역세권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평촌IC가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좋다.

/전지원 기자

K배터리, ‘46파이’ 제품 본격 양산

〈지름 46mm〉

차세대 배터리 기술 통해 시장 공략

LG엔솔 리비안 공급계약 체결
삼성SDI 천안공장서 생산 계획
SK온 46시리즈 개발 공식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46파이’(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차세대로 빠르게 옮겨가는 만큼 이에 발맞춰 신형 배터리 개발을 선도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향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가 오는 2025년 약 72GWh(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약 650(GWh)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46파이 배터리는 기존 원통형 배터리(지름 21mm·높이70mm)보다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개선된 제품이다.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 폼팩터 특성상 안전성이 높다. 각 셀의 크기가 작아 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 크기가 비교적 작으며 빈 공간도 많아 열 확산이 방지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완성차 업체들이 46배터리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배터리 업체 간 양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있다. 테슬라는 지난 2020년 kWh(킬로와트시)당 배터리 비용을 56%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게 원통형 4680배터리며 이와 함께 제조공정 리밸런싱, 음극재로 실리콘, 양극재로 코발트 함량을 줄이고 니켈 함량을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 사용 등을 도입했다.

국내 배터리사들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일찍이 46파이 배터리에 투자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과 원통형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8조~9조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으로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리비안에 67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SDI와 SK온 또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삼성SDI는 충남 천안 공장에서 46파이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용 배터리를 2025년 1분기 수주 계약에 따라 예정대로 양산하며 연내 전기차 고객사를 적극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SK온은 그동안 파우치형에 집중해 왔으나 올해 초 46시리즈 개발을 공식화했다.

일본 파나소닉도 경쟁에 가세했다. 파나소닉은 일본 와카야마현의 서부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46파이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46파이 배터리 시장은 각형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중국을 저지할 수 있는 승부처로 간주된다. CATL 등 중국 업체들도 46파이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개발 기간이 짧아 현재 국내 배터리사와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6파이 배터리는 까다로운 기술력을 요구해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여겨진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된 셀을 돌돌 말아 대형 원통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46파이 배터리가 안전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D, 연신률 50% 디스플레이 개발

늘이기, 접기 등 자유롭게 변형 가능

LGD디스플레이가 화면이 최대 50%까지 늘어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지난 5년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늘이기, 접기, 비틀기 등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 일반 모니터 수준의 고해상도 100ppi(인치당 픽셀 수)와 적·녹·청(RGB) 풀 컬러를 동시에 구현한다. 특히 지난 2022년 공개한 1차 시제품 대비 최대 연신율을 기존 20%에서 50%로 2배 이상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LGD디스플레이 측은 “콘택트렌즈에 쓰이는 특수 실리콘 소재 기판의 특성을 개선하고 배선 설계 구조를 신규 개발하는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해 유연성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패션, 웨어러블,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폭 넓게 적용될 수 있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LG디스플레이는 화면이 울퉁불퉁한 형태로 튀어나와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소방관 화재 진압복에 부착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등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활용 콘셉트도 다수 전시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동국제강 “연내 아주스틸 인수 마무리”

동국씨엠 M&A 본계약 체결

동국제강그룹의 냉연도금·컬러강판 회사인 동국씨엠이 컬러강판 시장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

10일 동국제강그룹에 따르면 동국씨엠은 8일 아주스틸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최종 계약 체결은 지난 8월 이뤄진 기본 계약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동국씨엠은 아주스틸 최대 주주 등 보유 지분 42.4%를 624억원에 인수한다. 또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1136만주를 570억원에 인수한다. 이로써 동국씨엠은 총 1194억원을 들여 아주스틸 지분 59.7%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M&A는 장선의 동국제강 구매

실장(전무)이 발굴부터 체결까지 세세히 업무를 챙긴 바 있다. 장 전무는 전략·생산 등 경험을 바탕으로 실사를 지원했으며, 향후 진행될 PMI에서 구매 분야 특화 강점을 살려 아주스틸과의 시너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동국씨엠-아주스틸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아주스틸은 동국씨엠 종속기업으로 편입된다. 동국씨엠은 연내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국씨엠은 “컬러강판 내수 시장 성장 둔화 속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지난 8월 아주스틸 인수를 통한 동종 업계와 결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 사업에서의 시너지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공장 곳곳 울려 퍼지는 전동드릴 소리 중·대형 트럭 ‘다품종 소량생산’ 분주

Q 르포

타타대우모빌리티 군산공장

400여명 기술자, 소비자 맞춤 제작 전기·수소 등 친환경트럭 생산 예정

“드르륵, 드르륵”

지난 6일 찾은 전북 군산시 타타대우모빌리티 군산 공장은 입구에서부터 전동드릴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했다. 이 곳은 조립공장으로 자동차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일반 승용차 공장과 달리 작업자들이 트럭 생산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조립공장에선 완성된 캡, 프레임,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장착하는 작업을 한다. 군산공장 조립라인에는 약 400여명의 숙련된 기술자가 근무 중하고 있다.

트럭은 일반 승용차와 달리 소비자가 원하는 용도에 맞춰 차량을 제작하기 때문에 하루 생산량은 최대 40여대에 불과하다. 일반 승용차 공장은 한 시간 동안 60여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일부 생산 라인에서는 8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요청한 다양한 종류의 기준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이렇게 생산된 타타대우모빌리티의 차량은 ‘대우’ 이름을 전면에 달고 세계 시장으로 수출된다. 브랜드 첫 전기트럭인 기겐을 시작으로 HD현대인프



타타대우모빌리티 군산공장 조립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차량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양성운 기자

라코어가 개발한 수소엔진을 탑재한 수소트럭도 2026년에 나올 예정이다.

이강수 군산공장 생산본부장은 “의장은 서에서 동으로, 사시는 동에서 서에서 이동해 만나는 구조의 턴오버 공정은 뛰어난 작업 효율성을 자랑한다”며 “이곳에서 4.5톤 이상 중형부터 22.5톤 이상 대형 트럭까지 전문으로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타대우모빌리티 군산공장은 한국GM, 현대중공업 등 공장의 폐쇄로 어려움을 겪은 군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

군산 공장은 대우상용차 시절인 1995년 준공된 타타대우모빌리티의 유일한 공장이다. 총면적 79만1875㎡ 규모로, 연 2만3000대의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용인원은 1280명으로 그 가족까지 3000여명

에 달해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이날 타타대우상용차는 사명을 ‘타타대우모빌리티’로 변경하고, 전통적인 상용차 전문 제조업체에서 고객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내연기관 중심 제품 개발에서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과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 비즈니스 모델도 확장한다.

특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전기트럭 시장을 공략한다. 2025년 상반기 LCV EV ‘기겐(GIXEN)’ 출시를 앞두고 있다. 최고 출력 250kW의 강력한 힘을 자랑하면서도 1회 충전 시 최장 480km를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방신 타타대우모빌리티 사장은 “상용차 외 혁신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전북)=양성운 기자 ysw@

SK이노, 마케팅 등 AI 업무활용 박차

2024 스카이에이

AI·DT 활용 우수사례 발굴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을 업무에 적용해 더 큰 성과를 내고, AI 활용 정보를 교류하는 등 운영개선(Operation Improvement)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위격힐에서 AI 소통과 공감의 장인 ‘2024 스카이에이(SKI AI Day)’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스카이에이’는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고 있는 운영개선의 핵심 도구인 AI와 DT를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이번엔 처음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SK이노베이션 계열 전체에서 출품된 76팀의 AI/DT 활

용 사례 중 우수사례로 24팀을 선정했고, 이 중 AI 활용분야 4팀, AI/DT 에이전트 분야 4팀의 최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 목적에 맞게 AI 아나운서가 행사를 진행했으며, AI로 생성된 이미지와 음악으로 행사장 곳곳을 장식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AI 활용 분야 최우수 사례에는 ▲AI 챗봇 기반 선박유 마케팅 시스템, ▲AI 기반 공정 자율 운전, ▲AI 자원 탐사 시스템, ▲SHE(안전, 보건, 환경) 생성형 AI 검토 모델이 선정됐다.

AI/DT 에이전트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최적 구매 모니터링 시스템, ▲R&D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공정 모니터링 자동화, ▲디지털 도구 확산 활동이 선정됐다.

/차현정 기자

KT, 인력개편 가닥... ‘AICT 컴퍼니’ 사업구조 전환 추진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전출·희망퇴직 신청자 4500명

자회사 KT OSP·KT P&M 설립
내년 1월1일자로 법인설립 예정

2028년까지 ROE 최대 10% 목표
누적 1조 자사주 매입·소각 추진

KT가 경영 쇄신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인 인력개편을 가닥 잡으면서 혁신에 본격 속도를 낸다. 그간 KT는 구조조정 관련 급심한 반발에 부딪히며 김영섭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인력 개편 의지를 이어가면서 결국 본격적인 쇄신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KT에 따르면 내년 출범하는 신설 자회사 전출 신청 인력이 17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까지였던 전출 신청 마감을 지난 4일로 일주일 연장했지만, 전출 신청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이날까지 KT 넷코어(전 KT OSP)와 KT P&M에 각각 1483명, 240명이 전출 의사를 밝혔다.

다만 특별희망퇴직 신청자가 2800여명 수준으로 예상보다 높아 목표했던 인력 재배치 규모를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위원회는 전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의 모습.

/뉴스시스

지원자들의 직무 전문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적합 인력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KT는 통신 네트워크 관리를 맡는 자회사 설립을 결정하고 관련 인력을 전출하는 등 인적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KT는 사회를 열어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합의를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철야 농성을 벌이며 구조조정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선 바 있다. 특히 고위 임원이 전출을 압박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김영섭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오전 사내 방송을 통해 기술 전문 자회사 KT OSP와 KT P&M의 설립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CEO 특별 대담을 진행하며 “최근 회자된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창용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이 전출 대상 직원을 상대로 연 설명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멸감과 자괴감이 있고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구성원들의

반발을 산바 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지난 1일 다수 노조인 KT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중지하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당사자인 안 부사장도 이날 특별 대담에서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T는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결국 인적쇄신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이는 탈통신의 기조 아래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KT는 인력 개편을 시작으로 신사업 발굴에 가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먼저 KT는 지난 5일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연결기준 6% 수준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을 2028년까지 최대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해당 기간 누적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AICT 기업으로의 사업구조 전환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혁신 ▲재원 확충 ▲자사주 매입·소각

등 세부 달성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AICT(AI+ICT) 컴퍼니’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향후 통신, 미디어, 네트워크, IT 등 각 사업의 구조를 혁신해 B2B AX 분야에서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별도 기준 서비스 매출의 6%를 차지하는 AI와 IT 분야의 매출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약 3배 수준인 19%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저궤도 위성 사업도 본격 추진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앞서 KT는 이동통신 영역이 지상에서 위성까지 확장되는 6G 시대를 대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손잡고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에 나섰다. 6G 시대에는 지상 통신을 넘어 위성 영역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궤도 위성 산업은 스페이스X와 아마존의 카이퍼 시스템즈(Kuiper Systems)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6G 시대에는 지상 네트워크와 위성 네트워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KT는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을 대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metroseoul.co.kr

LG전자, 서울역에 ‘이음5G’ 솔루션... 고객 안전 향상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이음5G 기반 철도 디지털경영혁신
시흥기지·구로변전소도 사업 전개

LG전자가 서울역에 5G 특화망(이하 이음5G) 솔루션을 시범 구축하며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에 나선다.

LG전자는 지난 8일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이음5G 기반 철도 분야 디지털경영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LG전자 조주완 대표이사(CEO), 코레일 한문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서 ▲철도 시설물 내 이음5G 네트워크 시범 구축 ▲철도 분야 서비스 및 운영에 특화된 기술 개발 및 검증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LG전자 조주완 CEO(왼쪽)와 코레일 한문희 사장.

/LG전자

이음5G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오피스 등 특정 공간에 제공하는 맞춤형 5G 네트워크다. 상용망이 아닌 전용 주파수를 사용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르고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다.

양사는 서울역을 시작으로 시흥차량기지, 구로변전소 등 3곳의 철도 시설물

에 이음5G 솔루션 실증 사업을 전개한다. 국내 철도 시설물에 이음5G 솔루션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역의 경우 승강장의 CCTV와 경보 시스템에 이음5G 솔루션을 적용해 이용 고객의 안전을 높인다. 예를 들어 선로에서 낙상이 감지되었을 때 해당 경보를 움직이는 열차로 빠르게 전송해 사고를 예방한다.

시흥차량기지에서는 열차에 설치된 각종 센서를 통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적절한 시점에 정비를 진행하는 ‘상대기반유지보수(CBM)’에 이음5G 솔루션을 적용한다. 고장이 발생한 후 또는 정해진 주기를 기반으로 정비하는 방식 대비 운영 효율성이 뛰어나 선호되는 방식이다.

양사는 장기적으로 서울역과 시흥차량기지 등 실제 철도시설물과 동일

한 3차원 가상 세계를 만들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통합 관제하는 ‘디지털트윈’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사는 LED 사이니지, 안내 및 물류 로봇, 웨어러블 장비 등 이음5G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 실증 사업을 통해 철도 분야에 특화된 이음5G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이음5G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0억달러(약 2조 7500억원)에서 2028년 약 118억달러(약 16조2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42%에 달한다.

조주완 CEO는 “LG전자의 B2B 사업은 단품 공급에서 멈추지 않고 고객이 머무는 공간 내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더하는 고부가 사업으로 지속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네이버 ‘날고’ 카카오 ‘주춤’... 3분기 실적 희비

네이버, 매출 11%, 영업이익 38% ↑
카카오, 매출 4% ↓, 영업이익 5% ↑

올 3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희비가 교차했다.

3분기 실적발표 결과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의 강력한 특인(Lock-In) 전략을 통해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카카오는 비교적 선방했으나 중심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벗어난 서비스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0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우리나라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은 단일 플랫폼 내에서의 이용자 록인 효과 여부에 큰 영향을 받았다. 네이버는 연결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2조7156억원, 영업이익은 38.2% 증가한 5253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의 3분기 매출은 같은 기간 4% 감소한 1조9214억원, 영업이익은 5% 증가한 1305억원을 기록했다.

올 3분기 네이버는 서비스 전반이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핵심 서비스인

검색 서비스는 플러스광고의 성장과 외부매체 상품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상승했다. 더불어 커머스 또한 광고와 중개 및 판매, 멤버십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12.0% 성장했다. 핀테크와 콘텐츠, 클라우드 또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0%, 6.4%, 17.0% 성장했다.

네이버의 고른 성장은 인건비·마케팅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한 것과 이른바 ‘네이버 생태계’로 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의 이용자 록인 효과로

설명된다.

카카오는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비교적 무난한 성과를 거뒀다. 카카오는 3분기 매출액 1조9214억원, 영업이익 130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줄었고, 영업이익은 5%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6.8%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플랫폼 부문 매출이 전반적인 매출을 견인했다. 플랫폼 부문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9435억원이나, 특비즈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은 전년 대비 21% 늘어나며 큰 성장을 이뤘다. /김서현 기자 seoh@

제주항공 ‘미슐랭’ 홍콩여행 추천 인천~홍콩 주 14회 운항

제주항공이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식당들을 비교적 쉽게 즐길 수 있는 미식의 천국 홍콩 여행을 추천한다.

홍콩내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식당은 총 78곳으로 34곳인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미슐랭 3스타’ 식당은 7곳으로 일본과 함께 최고의 미식 여행지로 꼽힌다.

아시아 최고의 미식 여행지답게 중식뿐만 아니라 양식, 일식 등 다양한 장르의 미슐랭 3스타 요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슐랭 3스타를 받았던 한식당의 지점도 홍콩에 위치해있어 한식 요리까지 즐길 수 있다.

제주항공은 인천~홍콩 노선에 하루에 주/야간 각 1편씩 총 주 14회, 제주~홍콩 노선에도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해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제주항공이 주 7회 일정으로 운항중인 마카오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인천~홍콩~마카오~인천’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여행 구성이 가능한 1석2조의 여행지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최근 미식·스포츠 여행 등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즐기기 위한 여행인 인터레스트립을 즐기기 위해 하루나 이틀의 연차를 활용해 짧게 자주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식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여행객이라면 한국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미슐랭 식당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홍콩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박스권에 갇힌 국내증시… 개인 투자자, 美 시장 ‘눈길’

지난 7일~8일, 개인 3494억 순매도
美 주식 보관금액 1000억달러 돌파
트럼프 랠리·연준 금리인하 시너지

국내증시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 투자자들마저 미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미 증시의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8월 2조5090억원, 9월 7조3610억원을 매도한데 이어 10월에도 4조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총 순매도 규모는 14조 2580억원에 달했다. 이탈 들어서도 코



코스피가 전 거래일(2564.63)보다 3.48포인트(0.14%) 내린 2561.15에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33.52)보다 9.86포인트(1.34%) 상승한 743.38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약 165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지난 7~8일 코스피 시장에서 3494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대로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0월 31일까지만 해도 910억6587만 달러였는데, 약 1주만에 90억 달러 가량이 미국 시장

으로 이동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500선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동학개미들이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반면, 미국 증시가 트럼프 랠리와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맞물리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내의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와 S&P500은 4% 이상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7%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희종 iM증권 연구원은 “이전 트럼프 집권 시절에 미국 증시는 여타 지역 증시 대비 강세가 뚜렷했고 달러화도 전반적으로 고공행진을 기록했다”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미국만의 강세가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증시는 내년 초 트럼프 2기의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 부각으로 국내 증시의 경우 정치, 경제, 안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특히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위축이 불가피해 내년 수출 전망이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트럼프 재정 정책 중 감세와 국제 발행 고려 시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따라온다”며 “이는 원화 약세를 자극해 외국인 매도 물량 출회를 자극하는 부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밸류업 공시 급증에도… ETF 전망은 ‘글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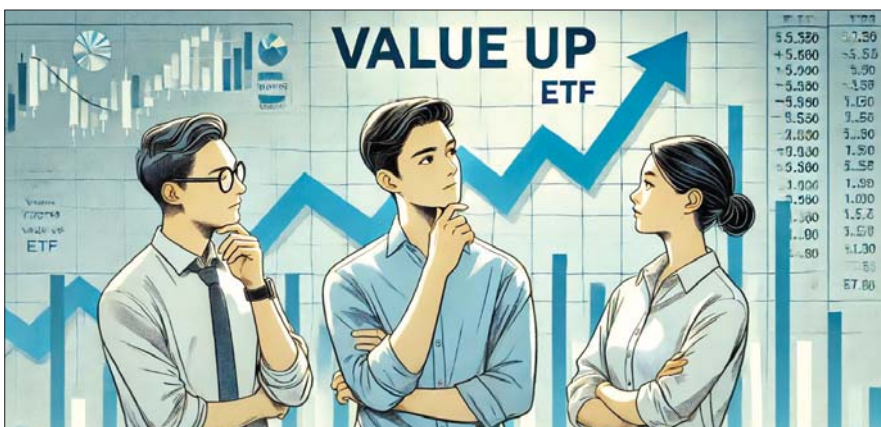
39개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단기간 ETF 수익률 높이기 어려워
참여도 저조… 전체 약 1.4% 가량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상장사들이 속속 밸류업 공시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됐지만 금융투자업계는 향후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총 39개사다. 지난 5월 말 기준, 밸류업 계획을 자율 공시로 내놓은 상장사가 9개사였던 것과 비교하거나 지난 8월까지 밸류업 공시에 나선 상장사는 10개사도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에 급속도로 밸류업 공시 기업이 많아진 셈이다. 반년도 채 안되어서 밸류업 관련 자율 공시는 4배 이상 증가한 셈이고, 예고 공시까지 포함하면 44개사로 증가한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 집중돼 있던 구성도 현대차, LG전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그룹 등 다양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들의 참여도가 높아져 업권도 다양해졌다.

밸류업 공시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밸류업 ETF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지만, 아직 수익률은 평균 3% 이상 이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12개 자산운용사와 삼성증권은 각각 한국거래소가 100개 우수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을 선정해 마련한 ‘코리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밸류업 ETF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들’ 모습.

밸류업 지수’를 기초로 한 ETF와 ETN을 상장했다. 이 중 ETF는 총 12개 상품이 출시됐다.

지난 7일 기준 밸류업 ETF 중으로 삼성자산운용의 ‘KODEX코리아밸류업’ ETF의 순자산은 23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8일까지 수익률 2.54%를 기록했다. 타임폴리오운용의 ‘TIMEFOLIO코리아밸류업액티브’ ETF는 8일까지 3.16%의 수익률을 기록해, 밸류업 ETF 중에서는 유일하게 3%대 수익률을 달성한 ETF로 나타났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공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 변경과 다양한 밸류업 후속지수를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투자자들의 수요를 다방면에서 충족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금융투자계 전반에서는 아직 공시에 참여한 상장사가 적고, 현재 지수가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경향이 있어 단기간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2793개의 기업 중(지난 10월 기준) 밸류업 자율공시에 참여한 기업이 39개라는 통계는, 밸류업 참여도가 전체 약 1.4%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같이 명확한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밝히고 주주 환원 정책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곳이 많아져야 하는데 이런 공시를 내놓는 게 상장사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율 공시든 예고 공시든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부실 공시를 내놓는 기업들도 있다”며 “더군다나 밸류업 참여도가 저조한 상황에서 일부 시종이 큰 기업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가 지속되면 수익률 전망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증권 애널리스트, 내년 증시 전망 제시

내일까지 ‘KB 애널리스트 데이’ 진행

KB증권이 리서치본부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내년 연간 증시 전망을 제시하는 ‘2024 KB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KB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담당 산업 부문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10일 KB증권에 따르면 11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애널리스트 데이는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되며, 누구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1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기업분석부와 투자컨설팅부 애널리스트들이 담당 산업 부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반도체부터 전기전자, 자동차, 통신, 정유·화학, 건설, 방위산업·조선, 철강,

유틸리티, 미디어, 게임, 제약·바이오, 금융, 미국 주식 등 주요 섹터에 대한 투자 전망을 제시한다. ESG리서치팀에서는 ESG와 관련된 주요 이슈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 내년 유망 테마인 K-식자재, 우주항공, AI, 비만치료제,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세포치료제, 골프, 미용 의료기기, 우주항공을 주제로 한 심층 분석도 제공한다.

12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자산배분전략, 매크로 부문 애널리스트들이 2025년 경제·금융 시장 전망을 발표한다.

자산배분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환율, 원자재, 채권, 국내 주식 전략, 미국 주식 전략, 아시아 주식 전략,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등 각 분야 담당 애널리스트가 내년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

/허정윤 기자

삼성운용 “KODEX ETF로 연금력 높여요”

이달 말까지 3종 이벤트 진행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상장지수펀드(ETF) 연금력’ 3종 이벤트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0월 론칭한 삼성금융 4사의 공동 퇴직연금 광고 ‘삼성금융 연금력’과 연계해 KODEX ETF 투자로 연금력을 높이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번째 이벤트는 ETF 보유 인증 이벤트이며, 대상 ETF는 KODEX 전 종목이다. 퇴직연금(IRP·DC) 및 연금저축 계좌에서 KODEX ETF를 10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역을 인증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에어드레서(1명), 비스포크 AI스팀 로봇청소기(2명),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카운터탑6인용(5명)을 제공한다. 두번째 이벤트는 연금력 상승의 비밀

을 맞추는 빈칸 채우기 퀴즈이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e카드 1만 원권(300명)을 지급한다. 마지막은 KODEX ETF 연금력 이벤트를 본인의 SNS에 공유하고 게시물 링크를 인증하면 된다. 추후 추첨을 통해 BBQ치킨세트(200명)를 제공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은퇴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적절한 연금계좌 관리 방법과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퇴직연금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자산운용은 KODEX홈페이지에 ‘ETF로 연금투자’라는 연금 전용 메뉴를 새로 만들었다.

/원관희 기자

위츠, 일반 공모주 청약 경쟁률 223.16 대 1

청약 3만8858건, 증거금 2690억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 위츠가 일반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223.16대1의 비례경쟁

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츠의 일반 청약에는 총 3만8858건의 청약이 청약액의 절반을 선 납부하는 증거금은 약 2690억원이 모였다.

앞서 진행했던 기관투자자 대상 수

요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츠의 일반 청약에는 총 3만8858건의 청약이 청약액의 절반을 선 납부하는 증거금은 약 2690억원이 모였다.

앞서 진행했던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츠의 일반 청약에는 총 3만8858건의 청약이 청약액의 절반을 선 납부하는 증거금은 약 2690억원이 모였다.

/원관희 기자

“피부와 처방제 15년 연속 1위… 글로벌 헬스케어社 도약”



인터뷰

동구바이오 조 용 준 대표

동구바이오제약이 토종 전통 제약회사를 넘어 글로벌 토털 헬스케어 회사로 도약할 준비를 하나, 돌씩 갖춰나가고 있다. 전문의약품을 토대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과 의료기기·화장품 제조, 바이오벤처 투자 등 바이오사업까지 영역을 점점 넓히면서다. 발걸음도 몽골,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미주 지역까지 넓히며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대표이사(부회장)는 1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회사는 알레르기, 피부질환 등 피부과 부문에서 15년째 1위를 하고 있다. 현재 4~5위를 하고 있는 비뇨기와 처방에서도 수년내 1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제네릭(복제약)을 넘어 개량신약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조용준 대표의 부친인 고 조동섭 회장이 1970년 동구약품으로 설립한 회사다. 관련 분야 업력만 어느새 50년을 훌쩍 넘었다.

조 대표는 제약 관련 중소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경기 화성에 있는 동구바이오제약 항남공장은 조대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 매카’다.

우수의약품 제조기준(cGMP) 수준의 최첨단 설비를 갖춘 항남공장은 374개 제품, 857개의 CDMO 품목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질캡슐제 뿐만 아니라 생산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연질캡슐제 생산능력은 국내에서 2위 수준

이다. 연간 기준으로 3억개의 연질캡슐과 1억4000만개의 경질캡슐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조 대표는 항남공장에 스마트팩토리, 자동화로봇 등을 도입해 생산혁신을 위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다. 실제 항남공장 생산라인은 제품을 포장하는 일부 단계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다. 또 EU나 미국 등이 독식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 장비를 국산화로 대체하기 위한 도전도 꾸준히 해 가시적인 성과도 제조라인 곳곳에서 거두고 있다.

조 대표는 “호흡기 감염 등 이비인후과 분야도 현재 11위에서 5위까지 올라서는게 목표다. 특히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40% 규모로 큰 내과 시장도 소화성 궤양, 고지혈증 등의 치료제를 중심으로 꾸준히 공략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약 개발의 꿈은 투자한 바이오벤처사와 시너지를 통해 실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사 큐리언트가 대표적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올해 100억원을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가 경기 항남공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비뇨기와 처방, 수년 내 1위할 것
복제약 넘어 ‘신약 개발社’ 목표
374개 제품, CDMO 품목허가 857개

상장사 ‘큐리언트’에 100억 투자
2026년 결핵치료제 신약승인 기대
몽골·베트남·라오스 등 뽐 진출

큐리언트에 투자, 최대주주가 됐다.

조 대표는 “큐리언트는 2026년 신약승인을 목표로 현재 결핵치료제인 ‘텔라세백’에 대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큐리언트와의 시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펩타이드 R&D 전문기업 노바셀테크놀로지 지분도 16.8%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외에 퇴행

성뇌신경질환 신약 개발사 디엔디파마텍, 동물질환 진단신약 회사 바이오노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사 지놈앤컴퍼니 등에도 투자를 한 상태다.

조 대표는 150억원을 들여 100% 지분으로 제약바이오 투자 전문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를 설립, 자회사로 두고 있다.

그는 “기업에 투자하고 회사와 회사가 만나 시너지를 내고, 여기에 물류와 유통을 더해 입체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소위 ‘점·선·면 전략’이다. 경기 평택 드림산단에 있는 중소제약사 공동의약품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의약품 유통의 생태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피코이노베이션은 내년까지 1만5000개에 이르는 약국과 직거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피코이노베이션 설립을 주도해 업계 최초로 공동 물류센터까지 만들었다.

26개 제약사가 뭉친 물류센터는 지난해 3월 준공해 의약품을 전국에 실어나르는 모세혈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10여개 사가 추가로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111개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CDMO 부문은 2021년 당시 424억원 수준이던 매출이 지난해 526억원까지 증가했다.

조 대표는 “CDMO 매출은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3.5%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커가고 있다. 회사 전체 매출의 약 30%가 CDMO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CDMO는 이익률이 뛰어나 부가가치도 높다. 이에 따라 R&D 기반의 전략영업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수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를 자주 오가고 있다.

조 대표는 “몽골에선 현지 의약품 제조사인 문킨쿤, 그리고 의약품 유통사인 MEIC와 현지 합작 공장 설립 및 지분투자를 위한 계약을 했고 현지 법인도 설립했다”며 “베트남도 현지 제약사(필인터파마) 모기업인 필인터내셔널과 한국 및 아시아 지역 판매를 위한 위·수탁 개발, 생산,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라오스는 향후 생산거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경기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기업 발전·육성 기여 공로자 포상

중기중앙회·중기부

모범 중소기업인 등 4개부문 대상
내달 13일까지 ‘유공자 포상’ 접수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펼쳐진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오는 12월 13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0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도 유공자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또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상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을 받을 수 없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왼쪽 6번째)이 지난 8일 열린 ‘K Unicorn Dream Show 2024’에서 세레머니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펀드’ 후배 이끈다

중진공 ‘K-유니콘 드림쇼’ 개최
‘청창사 동문펀드’ 첫 투자 협약식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기업인들이 만든 ‘청창사 동문펀드’가 후배 스타트업들을 본격적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파이팔토리 스튜디오에서 ‘K- Unicorn Dream Show 2024’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K- Unicorn Dream Show 2024’ (드림쇼)는 “Dreaming, 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글창사) 입교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네트워킹·글로벌 진출 등 기회의 장을 제공해 청년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드림쇼는 전국의 18개 청창사와 글창사 입교생 및 졸업생 350여명을 비롯해 유관기관, 국내외 엑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및 글로벌 대기업 등 민간 전문기업 대표 50여명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청창사 출신 기업인들이 출자한 ‘청창사 동문펀드’의 첫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선 동문펀드 1호와 2호를 연달아 조성해 후배 기업인 3명에 대한 총 4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창업 사업과 성과 우수 입교생과 공로자 시상 ▲투자유치 유망 입교생 데모데이 ▲청창사 우수 제품 전시관 ▲해의 인플루언서의 우수제품 홍보 라이브 방송 ▲아마존웹서비스,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 등 글로벌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멘토링 ▲청창사 동문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도 진행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청창사에서 1년여간 실력을 갈고 닦은 입교생들이 졸업 후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활약을 이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창업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을 넘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中企 후불형 R&D 금융지원 나서

기정원·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IBK기업은행과 ‘후불형 R&D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기보에 따르면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후불형 과제에 선정된 후불형 연

구개발(R&D) 수행기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후속사업화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후불형 R&D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후불형 과제는 중소기업의 도전적·혁신적 R&D 추진을 위해 R&D 수행기업이 자체 자금을 먼저 투입해 과제를 연구개발하고, 성공판정 시 정부출연금으로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보전받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53개의 후불형 R&D 과제를 대상으로 총 465억원 지원했으며 올해는 40개의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후불형 R&D 수행기업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를 상향(100%), 보증료 감면(최대 1.0%p) 등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독일·베트남·튀르키예 국제농업박람회

농식품부, K-농기자재 홍보 지원

이달 세계적 농업박람회 집중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개척 등 기회 제공

정부가 이달 중하순에 걸쳐 독일 등 3개국에서 개최되는 농업박람회에 한국 전시관을 설치하고 K-농기자재 홍보를 지원한다. 국내 우수 농기자재의 대외홍보를 통해, 유럽 및 동남아 지역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일(현지 시간) 독일을 시작으로, 13일 베트남, 20일 튀르키예에서 개막하는 국제 농업박람회에서도 한국관을 잇따라 운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독일(11월 12~15일, 국내기업 22개사 참가) 행사에는 동물용의약품 12개사, 사료5개사, 축산농기계5개사가 참가한다. 이어 베트남(11월 13~15일, 17개사) 행사에는 비료 9곳, 친환경농자재 3곳, 농기계 2곳, 시설자재 2곳 종자 1곳 등이 선보인다. 튀르키예(11월 20~23일, 10개사)박람회에는 비료 3곳, 친환경농자재 2곳 농기계 2곳, 시설자재 1곳 종자 1곳, 사료 1곳의 참가가 예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각 박람회별 구매의사가 높은 해외 바이어들을 사전에 발굴했다. 수출상담회 진행 등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협약(MOU) 및 구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유로티어(EuroTier) 2024’는 혁신 기술을 통한 가축 사육 및 관리 부문의 세계적인 전시회다. 농기자재뿐만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 업체 12개사가 함께 참가해 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 참석해 첨단 농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산 관련 제품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그로우테크 엑스포(Growtech EXPO) 2024’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국제 농업 전시회다. 국내 비료업체의 동남아 수출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비료·친환경농자재 분야 중심으로 한국관을 구성한다. 이번 참가로 비료 분야 수출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예정돼 있는 ‘그로우테크 안탈리아(Growtech Antalya) 2024’는 세계 농업관계자들이 온실기술, 관개시스템 등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온실 박람회다. 우리 측은 온실 피복재, 자동 농산물 재배시스템 등 국내 온실 관련 농기자재 제품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도 국내 농기자재업체 8개사와 함께 참여하며, 사전협의를 통해 참가업체 간 교류행사를 마련하는 등 농기자재 기술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게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해외 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11월은 세계적인 국제 농업박람회가 집중돼 있는 시기로, 연초부터 국내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관심과 참가 의사가 높았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11월에 집중된 박람회 참가는 비료, 시설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 농기자재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K-농기자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친환경농자재 및 사료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상담회’(BKf+)와 연계하는 행사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송미령 “배추, 고춧가루 등 가격 하락세”

(농식품부 장관)

김장재료 수급 동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1일 배추 등 김장 주재료 값은 물론, 고춧가루 등 부재료도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방문해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의 김장재료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또 지난달 23일 발표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축산물 할인 코너도 둘러봤다.

그는 농협 관계자 등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한 뒤 “김장 주재료인 배추도 매가 가격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장이 시작되는 11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고춧가루, 양파 대파 등 부재료도 생산량이 증가해,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2만 4000톤)·무(9100톤)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마늘 등 양념채소류는

정부비축 물량을 공급해 시중 유통량을 늘리는 데 주력해 왔다. 아울러, 할인지원을 통해 12월4일까지 배추·무 등 11개 김장재료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2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7일 시작된 ‘최대 40% 할인’은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실시된다. 구매하는 배추 1인당 마트 등은 2만원, 전통시장은 3만 원이다.

양념류는 수입산 고추 1000톤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한다. 국산 마늘과 양파는 각각 500톤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일부 물량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해 할인 판매한다. 배는 폭염 피해물량 1만 톤을 푸레 등 가공품으로 공급하고 천일염은 5000톤을 전통시장 및 마트 등에 직접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코트라, ‘K-스마트팜’ 호주 진출 발판 마련

농식품부와 ‘한-호 스마트팜 로드쇼’

광활한 농지를 보유한 호주 현지에서 K-스마트팜 혁신기술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타진하는 행사가 열렸다.

코트라(KOTRA)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우리 스마트팜 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2024 한-호 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호주는 국토의 49%에 달하는 3억 7000만 헥타르(대한민국 면적의 37배)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농업자원 관리와 스마트팜 기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첨단 농업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스마트팜 기술연구와 개발에 힘쓰고 있다.

코트라는 이번 행사가 우리 기업의 호주 농업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트라(KOTRA)가 지난 8일 개최한 ‘한-호 스마트팜 로드쇼’에 참석한 국내 기업과 호주 현지 기업 및 연구소 관계자들이 1대 1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코트라

행사는 ▲한-호 스마트팜 산업동향 세미나 ▲현지 유망 프로젝트 소개 ▲한-호 스마트팜 기업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진행됐으며, 웨비나 동시 진행으로 국내 스마트팜 분야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상담회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호주 수출이 활발한 라면, 장류, 배, 인삼 등 K-푸드 홍보 행사가 진행돼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마사회 “경마로 국민들에 문화생활 제공”

경기도 과천시 ‘벤티트파크 서울’
2040 전용공간 ‘놀라운지’ 마련
전체 경마 매출 중 90% 사회환원

“주말 하루에만 약 8만에서 10만명이 사업장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경마를 관람한다. 경마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국민들의 여가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는 ‘벤티트파크 서울’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마장으로, 가족이나 친구 등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다. 규모는 약 115만㎡(35만평)에 달하며, 1998년까지는 ‘서울 경마장’으로 불렸으나 도박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경마공원으로 개칭됐고, 2014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지난 9일 방문한 ‘벤티트파크 서울’은 다양한 나무와 꽃들로 꾸며진 잔디밭에 돛자리를 펴고 있는 가족들과 심장을 뛰게 하는 경마를 즐기는 20~30대 MZ청년들로 가득했다. 이는 경마가 투기나 도박이 아닌 건전한 생활 레저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40 전용공간인 ‘놀라운지(NOL L



‘벤티트파크 서울’에서 경마가 진행되고 있다. /김대환 기자

OUNGE)’에서 경마를 즐기고 있는 A씨(30세)는 “1만원 정도로 한도를 정하고 경마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전한 취미 생활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B씨(28세)는 “남자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경마장에 와 봤는데 사다리타기 같은 다양한 이벤트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놀라운지’는 지난 2016년 1월 한국마사회가 2030세대들에게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공간이다. 초보 경마교실, 내부좌석, 그랜드스탠드, 한국경마 100년 기념관 등으로 구성된 이라운지는 건전하고 즐거운 여가로서의 경마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말 산업으로 국가 경

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전체 경마 매출 중 약 9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경마 고객은 약 1000만명, 총 매출은 6조 5000억원으로 집계된다.

총 매출의 73%는 경마에 참여한 고객에게 환급되며, 9%는 경주 상금과 시설 비용 등의 운영 경비로 사용된다. 16%는 레저세, 교육세 등의 세금으로 납부되며, 약 2%의 이익금은 기부금, 축산발전 기금 등으로 활용된다.

김삼두 한국마사회 홍보실장은 “경마시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즐거운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있다”며 “발생되는 수익금은 말 산업 육성과 축산 발전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KIAT ‘韓 지방시대 엑스포’ 5만명 방문

사흘간 행사 진행… 성황리 종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6~8일까지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5만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엑스포는 정부의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사례 등을 공유·소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정책박람회다.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첫날 열린 ‘제2회 지방시대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이 누구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일자리부터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시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사흘간 이어진 행사에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 관계자, 청년, 기업, 활동가, 지역민 등 총 5만여 명이 방문해 지방시대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4 글로벌디지털초월대상 시상 및 컨퍼런스

The Edge of ACx : AI, CLOUD 비즈니스 성공 전략

2024. 11. 25.(월) 13시 4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B1)



[제1부] 초월대상 시상식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40~14:00	20'	VIP 티타임	VIP룸(소회의실1)
14:00~14:02	2'	초월대상 시상 개회	사회자
14:02~14:27	25'	[기조강연1] 인공지능 전환(AI) 시대의 정부혁신과 전략	황종성 원장 (NIA)
14:27~14:50	25'	[기조강연2] 생성형 AI시대,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	김득중 부원장 (NIPA)
14:50~14:53	3'	개회사	조풍연 회장 (한국SW·ICT총연합회)
14:53~14:56	3'	환영사	강도현 차관 (과기정통부)
14:56~14:59	3'	축사	강병준 사장 (전자신문사)
14:59~15:02	3'	축사	이장규 대표이사 (메트로경제)
15:02~15:30	30'	2024 초월대상 수상자 시상 및 사진 촬영	
15:30~15:40	10'	Break Time (컨퍼런스 준비)	사회자

[제2부] 컨퍼런스 개최 (The Edge of ACx : AI, CLOUD 비즈니스 성공 전략)

일정	시간	트랙1		트랙2	
15:40~16:00	20'	AI가 이끄는 클라우드의 방향	김원일 이사 (투이컨설팅)	AI 일상화 시대 :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전환으로	지용구 대표 (더존비즈온)
16:00~16:20	20'	연계미들웨어 기반의 생성형 AI 및 RAG 연계 전략	이승형 실장 (메타빌드)	데이터 일관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통합솔루션	이동석 총괄대표 (한국정보기술단)
16:20~16:40	20'	주목하라! AI시대 증가량 비즈니스	구본홍 이사 (PCN)	생성형 AI기반 공공 AI 혁신 전략과 사례	표정수 이사 (클라이온)
16:40~17:00	20'	AI·클라우드가 리드하는 업무효율 극대화: 차세대 협업	전일권 상무 (가온아이)	사례로 보는 AI 테스트	김기범 이사 (와이즈와이어즈)
17:00~17:10	10'	경품 추천 (※ 아이패드, 스타벅스 상품권 등)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metro

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부정보화협의회,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한국SW저작권협회, 정보시스템관리협회, 한국PMO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문의 : 이석균 부회장 010-9132-0390

‘창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 스타트업 체계적 지원 박차

스타트업 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4대 전략, 16개 핵심추진과제
혁신 스타트업 양성 등 목표

김해시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정책 5개년(2025~2029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스타트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업투자유치단 내 스타트업지원팀을 신설해 창업 지원 우수기관 벤치마킹, 유관기관 관계자 면담, 스타트업 포럼 간담회, 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창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내년부터 5년간 창업 전주기 종합지원, 투자재원 조달(펀드 1000억 조성), 창업문화 저변 확대, 스타트업 육성 협업체제 구축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전략, 16개 핵심 추진과제로 김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



김해시청 전경.

역의 앵커기업, 나아가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첫째 전략 산업 연계 기술집약형 혁신 스타트업 양성이다. 이는 선도기업 연계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 지원, 선배 기업의 성장DNA 공유 파트너십 운영 등 4개 사업이다.

둘째 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와

인프라 확대로 지역기업 스케일업을 책임지는 펀드 확대 조성, 스타트업 지원 시설 인프라 지속확충 등 3개 사업으로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와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 스타트업 지원 시설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이 포함됐다.

세번째는 창업 친화적 환경과 도전적인 창업 분위기 조성으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부트캠프 DO-

DREAM을 포함한 4개 사업을 통해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김해시에 유망한 스타트업을 꾸준히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네번째는 지원기관 협력 플랫폼 조성을 통한 네트워크와 인재양성 강화로 스타트업 소통협의회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활성화, 맞춤형 창업인재 발굴과 육성 특화사업 등이다.

연구기관, 대학, 창업지원기관, 투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고 청소년 모의 창업캠프와 학교로 찾아가는 창업체험 교육 등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김해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인재 양성으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교육청-광주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를 분담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일 ‘2024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 교통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에서 제안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안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광주G-패스 사업의 어린이·청소년 부분을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분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최대 40%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거창군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거창군은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안전망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문고리형 홍보물을 제작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복지위기 알림 시스템 설치 안내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주요 목표로 한다.

군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 곤란 가구 ▲폭방·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가구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을 발굴해 긴급 복지 지원 등 공적 복지제도, 민간 서비스, 통합 사례관리, 아립 1004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경북교육청

초등학생 영어실력 인증 축제

초중학생들이 자신의 영어실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 ‘축제’가 경북에서 처음으로 마련된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30일 경산시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체육관에서 ‘제1회 도전! 영어인증 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저하된 학생들의 영어 학력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완수해 인증받음으로써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된다.

이 행사에는 학교장 인증을 마친 초등학생 380명, 중학생 160명 등 540명이 참가한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구미시

경북 첫 액화수소 충전소 개소

경북 구미시는 경북도 최초 액화수소 충전소인 선기동 수소충전소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 선기동 수소충전소는 경북 지역 첫 액화수소 충전소다.

SK플러그하이비스가 2022년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 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돼 75억원의 사업비로 구축했다.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어 하루 평균 약 120대의 수소버스가 이용 가능하다. /구미(경북)=김상복 기자

경주시, 3억 투입해 경관관리 나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지자체 디자인 역량 강화 등 목적 중점 추진 권역 3곳으로 나눠 추진

경주시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합적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 구상마련에 나섰다.

경주시는 ‘경주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총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5년 11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예산은 2024년 국토교통부 주관 민간 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지자체의 디자인 역량 강화 및 지역경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시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역사·문화를 품는다 ▲사람·환경을 담는다

▲시간·공간을 잇는다 라는 비전을 세워 추진한다.

특히 역사적 정체성 확립, 도심 통합 및 연계 강화, 지역자원 활용성, 사업 연계성을 근거로 중점 추진 권역을 3권역으로 나눠 설정했다.

1권역은 원도심(읍성 및 주변), 2권역은 주요 생활권(황성, 동천 등), 3권역은 보문단지로 구분해 차별화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먼저 공간환경 여건 분석 및 과제를 도출해 중점 추진권역 기본공간구상을 거쳐 건축 도시 관련 제도와 연계한 실행 방안을 정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조화를 고려한 공간관리 비전 및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광주 상무지구, ‘도시융합특구’ 지정

2026년부터 총 사업비 1.5兆 투자

산업과 주거·여가가 집약된 도심 개발이 가능한 ‘도심융합특구’로 광주 상무지구가 지정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서구 상무지구 일대 85만2693㎡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문화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이 집중된다.

광주도심융합특구는 광주시청이 위치한 상무지구 도심과 인접해 있어 산·학·연 연계가 유리하고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강점을 지녔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부터 총 사업

비 1조5790억원을 투자해 특구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해 오는 203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 첨단 특화사업, 의료·디지털 융합사업, 연구개발(R&D) 혁신사업, 마이스(MICE)·문화 융복합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또 광주도심융합특구 인근 9만1298㎡에는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상무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진행 중이며 광주의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도 구축된다.

광주시는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건설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영덕군, 전국 송이 생산량 13년 연속 1위

전국 송이 생산량 중 22.3% 차지

영덕군이 산림조합중앙회가 집계한 전국 송이 생산량에서 13년 연속 1위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기록을 남겨 명실상부한 자연산 송이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영덕군은 유난히 긴 가을 폭염과 가뭄이 이어져 송이 생산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 놓여 예년에 비해 2주 정도 늦게 송이가 나오기 시작해 10월 2일 영덕군산림조합이 진행한 첫 송이 공판에서 1.4kg이라는 최소량이 경매됐다.

올해 전국 송이 생산량은 70.6톤 165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으며, 이중 영덕군은 15.8톤 33억 원으로 전국 생산량의 22.3%를



13년 연속 영덕명품송이 전국 1위 달성.

차지해 13년 연속 전국 1위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판매장을 영덕군 민운동장과 영해휴게소에 설치해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의 송이를 맞출 수 있는 ‘명품송이 한마당’을 운영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도, 반도체 부품·장비기술 개발

1.2억 투입해 4개 기업 지원

경상남도과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경남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남 반도체 부품·장비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남의 기계, 소재 산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반도체 산업 진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경남도는 올해 예산 1억 2000만 원을 들여 반도체 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 품질 향상, 공정 혁신을 위해 4개 기업을 지원해 성과를 내고 있다.

금속웨이퍼 기술 고도화를 진행한

‘메탈C&P’는 2023년도 대비 매출 21% 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지유’는 새로운 압전 액추에이터를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해 매출이 약 3000만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진공기술’은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계약이 완료돼 12월 중 납품될 예정이다. ‘디엠’은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아 2025년도 상반기 양산할 계획이다.

경남TP는 수혜 기업의 부품과 개발 제품에 대해 ‘스마트센싱유닛 실증센터’에 구축된 장비를 활용해 성능 및 환경 시험 4건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제품 특성을 분석해 제품 신뢰성 확보를 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쿠팡, 일자리 창출 8만명… 지방 직고용 51% 2030 청년층

지역 직고용 ‘구직난 방파제’ 역할
작년 여성 일자리 2만명 이상 창출
장애인인력 1300명, 전년비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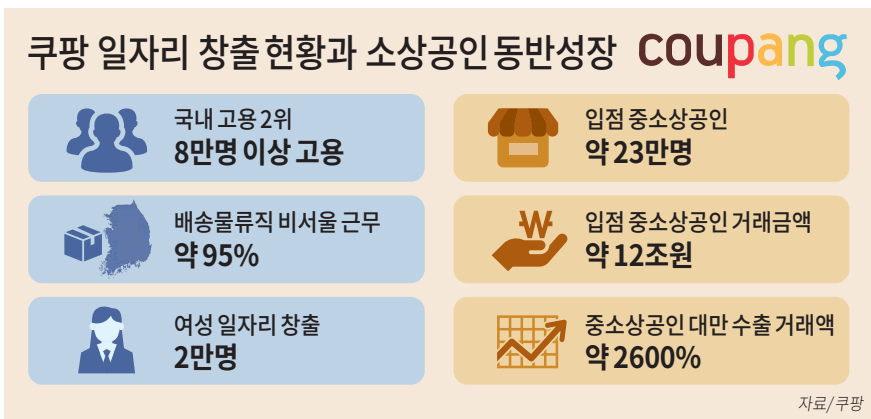
소상공인 23만명, 1년새 3만명 ↑
거래금액 12조 전년비 30% 뛰어

쿠팡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8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인구소멸, 경기침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심으로 직고용 일자리를 늘려 ‘구직난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쿠팡의 고객과 물류망이 전국으로 촘촘히 확대되면서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가파르게 올랐고, 이들의 대만 수출도 가속화되며 동반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쿠팡이 발행한 ‘2024 쿠팡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과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직고용 인력은 지난 9월 기준 8만명을 넘었다.

쿠팡의 직고용 인력은 지난 1월 7만 명에 도달했는데, 약 8개월 만에 1만명



가량 늘어났다. 쿠팡을 쓰는 소비자가 늘수록 지역에 더 많은 물류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되고,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소도시에서 빠른 취업이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지역 청년들에게 수요가 높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쿠팡의 지방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2030 청년 직고용 인력 비중은 51% 이상이다(지난 9월 기준).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의 2030 청년 비중(약 40%) 보다 높은 수치다.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채용 박람회

등을 열어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물류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 결과다.

여성과 장애인 일자리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쿠팡은 2만명 이상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했고, 물류센터 근무자의 50%가 여성이다. 장애인 고용인력은 1300명을 넘어, 전년 대비 20% 늘었다.

저출산 시대에 쿠팡은 출산 장려와 직원 건강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육아제도를 사용한 쿠팡의 배송 직원 중 85% 이상인 약 500명이 육아휴직을 썼고, 그 외 100여명은 육아기 단축근로를 이용했다. 육아제도를 쓴 직원 97%는 일터로 복귀했다. 육아휴직 사용 비

중은 매년 크게 오르는 추세다.

또 지난해 쿠팡은 시설 안전점검과 안전물품 구입 등에 약 180억원을 투자했다. 근로자들이 수시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쿠팡 헬스케어센터와 쿠팡레스트 정신건강 상담센터엔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 투자했고, 약 2만5000명의 직원이 사용했다.

지역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쿠팡으로 판로를 전국으로 넓히며 고속 성장했다. 특히 국내를 넘어 대만 로켓배송을 통해 수출을 늘리는 업체도 크게 확대됐다. 쿠팡에 입점한 중소기업인은 지난해 기준 약 23만명으로 1년 사이 약 3만명 늘었다. 이들의 거래금액도 12조원 수준으로, 전년(9조원)보다 약 30% 뛰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추가 물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열어줄 계획”이라며 “쿠팡 직원들이 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국내 최초로 롯데월드몰에서 진행되는 드래곤볼 팝업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드래곤볼’ 팝업 오픈

롯데백화점이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의 공식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rium 광장에서 지난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원작사가 승인한 국내 첫 공식 ‘드래곤볼’ 팝업 스토어다. 드래곤볼의 40주년을 기념하고, 갑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특별히 기획됐다.

역사적 애니메이션인 ‘드래곤볼’의 스토리와 상품을 종합한 ‘스토리텔링형’ 팝업이다.

‘드래곤볼’은 전 세계적인 격투 만화 신드롬을 불러온 애니메이션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두터운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앞서 열린 일본, 대만 등지의 팝업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잠실 롯데월드몰 팝업에서는 아트rium 광장의 265㎡(약 80평)의 공간을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의 한 장면처럼 꾸민다.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인공과 배경으로 매장 곳곳을 연출해, 고객들에게 실제 만화 속에 들어온 것과 같은 이색 경험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홈플러스 온라인 김장족·김포족 증가

홈플러스 온라인은 금(金)배추가 화두에 오르면서 예년보다 빠르게 김장을 준비하는 이른 ‘김장족’과 김장을 포기하고 대용량 김치를 구매하는 큰손 ‘김포족(김장을 포기한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홈플러스 온라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절임배추 사전예약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또 올해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지난해 3달 간의 매출을 넘겼다. 그만큼 미리 저렴하게 김장을 준비하고,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주문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10월까지 포근한 날씨로 배추 가격 급등이 화제가 됐고 ‘김장족’의 소비 촉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포족’의 온라인 소비도 증가했다. 지난달 포장김치 매출은 전년 대비 25% 올랐는데, 흥미로운 점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포장김치 중 중량이 가장 큰 10kg 상품의 매출이 무려 18배나 폭등했다는 것이다. 배추 물가 상승으로 ‘김장족’이 ‘김포족’으로 돌아서면서 대용량 완제품 김치를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빛나 기자

“건강식품·초콜릿·쿠키… 수험생 응원 선물 준비하세요”

고려은단 ‘솔라C 젤리스틱’ 선배
파리바게뜨 ‘합격기원 세트’ 출시
뚜레쥬르 ‘찰쌀찰쌀 딸불찰떡’ 등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식품업계의 마케팅이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기존 대표적인 수능 선물이었던 옛 대신 건강식품과 초콜릿, 쿠키 등 수험생의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주목받음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신제품 및 수능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고려은단은 귀여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C 영양 간식 ‘솔라C 젤리스틱’을 출시했다. 글로벌 비타민 원료 기업 DSM사의 프리미엄 비타민 C 500mg을 함유했으며, 상큼한 오렌지



솔라C젤리스틱(왼쪽). /고려은단
파리바게뜨 수험생 응원 선물세트. /SPC그룹

맛의 젤리 제형으로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온 우주가 널 응원해’를 슬로건으로 행운을 의미하는 네오킴로버와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찰떡 등 재치있는 스토리를 반영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오색찬란한 찰쌀떡에 통팥, 고구마, 고운 팥앙금 세 가지 맛을 담은 ‘오색찬



란 찰쌀떡’, 다양한 색상의 찰쌀떡과 고소한 호두정과로 구성된 ‘합격 기원 세트’, 폭신하고 부드러운 카스텔라에 고운 팥앙금을 넣은 만주에 네오킴로버가 각인되어 있는 ‘고운 단팥 행복만주’ 등이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럭키 루키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콘셉트로 수능 시즌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

/원선선 기자 tree6834@

롯데온, 17일까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노스페이스 자켓 등 월동상품 특가

롯데온은 11일부터 17일까지 ‘롯데온에서 만나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이하 코세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온에서는 한파가 예보된 이번 겨울을 위해 완벽한 월동 준비를 돕는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가볍고 따뜻한 노스페이스 얇시 온볼 자켓과 하이브리드 다운 코트를 비롯해 닥스 키즈 및 헤지스 키즈의 프리미엄 아우터 그리고 바바라 세븐플로어 부츠와 알레르

망 이불, 경동나비엔 온수매트와 환절기 뷰티아이템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총망라해 선보인다.

코세페 쿠폰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롯데온 검색창에서 필요한 상품을 검색하고, 결과 페이지에서 ‘코세페’ 필터를 선택한다. 검색된 상품에 코세페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쿠폰 적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11월 첫째 주 기준으로 롯데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월동 준비 상품은 방한커튼과 난방텐트, 기습기 순으로 나타났다.

/최빛나 기자

롯데免, 리아킴 협업 브랜드 ‘싱글러’ 첫 선

잠실 롯데월드몰서 팝업스토어 운영

롯데면세점이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와 협업해 첫 패션 브랜드 ‘SINGULAR(싱글러)’를 선보이고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신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원밀리언은 유명 안무가 리아킴이 이끄는 세계 최대 댄스 스튜디오로, 유튜브 구독자 약 260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면세점 역시 외국인 고객이 전체 매출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K-팝 마케팅을 통해 K-컬처 열풍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원밀리언과의 글로벌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지난 4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약 7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패션 브랜드 ‘싱글러’를 론칭했다.

싱글러는 국내 유일의 댄스웨어 브랜드로, 자신만의 개성과 자유를 마음껏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최빛나 기자

뷰티업계, ‘럭셔리 제품’ 역량 집중… 글로벌 신성장 노린다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등 럭셔리 브랜드 재분류

LG생활건강

더후 앰버서더 김지원 발탁

신세계백화점

‘시코르’ 대표직속 조직 신설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K뷰티 성장 가능성이 ‘럭셔리’ 제품군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 핵심 계열사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9772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7.7% 증가한 652억원을 기록했다. 럭셔리 제품군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난 3176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아모레퍼시픽 전체 매출의 3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홀리데이 기프트’에 자음생크림을 비롯해 친환경 디자인 브랜드 ‘오마치’와 협업한 한지 사제 세트 및 설화수 코듀로이 파우치를 담았다. /아모레퍼시픽

또 국내 사업 매출 5345억원 내에서 비교하면 럭셔리 제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이다. 이 가운데 설화수와 헤라의 비중은 각각 29%, 1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럭셔리 브랜드를 재분류하고, 브랜드별 주요 제품군을 강화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기존 아모레퍼시픽 대표 럭셔리 브

랜드인 설화수, 헤라, 에이피뷰티에 이어 아이오페와 홀리추얼이 럭셔리 부문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해외에서도 럭셔리 제품군은 높은 성과를 거뒀다.

아모레퍼시픽이 미국에서 고성장에 성공한 반면,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설화수는 미국, 중

국 모두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다.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6506억원, 영업이익은 42.8% 증가한 114억원이다. 화장품 사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소폭 줄고, 영업이익은 해외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아쉬운 실적에도 LG생활건강이 주목하고 있는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는 성장을 지속했다. LG생활건강 화장품 사업에서 더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는 가운데, 더후는 중국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글로벌 앰버서더로 배우 김지원을 발탁하고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글로벌 명품 뷰티 브랜드로서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LG생활건강은 올해 더후 대표 제품 ‘비접 자생 에센스 4.0’ 재단장을 기념해 해외 인플루언서를 국내에 초청하고,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는 등 온

라인 시장에도 주력해 왔다.

이처럼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들이 럭셔리 브랜드를 앞세워 K뷰티 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내 화장품 유통 시장에서 거대 뷰티 편집숍으로 떠오른 CJ 올리브영도 올해 자사 온라인몰에 더후와 설화수를 잇따라 입점시켰다. 올리브영은 고급 브랜드까지 폭넓게 확보함으로써 K뷰티 전반을 아우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뷰티 업계의 원조 럭셔리 뷰티 편집숍 ‘시코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코르는 지난 2016년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이 직접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정유경 총괄 사장이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시코르 총괄을 대표 직속 조직으로 신설하기도 했다.

시코르는 과거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갖춰 차별화를 꾀한 바 있고, 현재는 ‘백화점 브랜드부터 루키 브랜드까지 신세계가 만든 뷰티 플랫폼’을 주제로 K뷰티 브랜드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유통업계, 데이·수능 마케팅 분주… “마음 전하세요”

편의점, 캐릭터 협업 제품 기획
e커머스·마트, 대규모 할인 행사

유통업계가 ‘빼빼로데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과 할인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곰 캐릭터 ‘리락쿠마’, 현실을 풍자하는 블랙 유머로 직장인들에게 공감을 사는 오리 캐릭터 ‘곽철이’, 커피 강아지 캐릭터 ‘몰티즈 앤 리트리버’ 등과 협업한 빼빼로 상품 40여종을 출시했다. 아울러 CU는 수능 선물로 서울대 마크가 그려진 서울대 초콜릿, 손목시계를 기획 제품으로 판매한다.

GS25는 자사 캐릭터인 ‘무무씨와 친구들’ 빼빼로를 선보인다. 캐릭터별로 오리지널, 아몬드, 크런치, 초코필드, 화이트쿠키 등 5가지 맛의 단품을 선보이며 차량용 목쿠션세트, 스티커세트 등과 함



편의점 CU 모델이 빼빼로데이 캐릭터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BGF

께 구성한 기획상품을 준비했다.

이마트24는 고양이 캐릭터 ‘마인드 어데이 커버캣’과 협업한 기획세트 4종을 선보인다.

이마트는 수능시험일인 오는 14일까지 ‘수능·빼빼로데이’ 기획전을 열고 과자류 행사상품 2만 50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5000원을 증정한

다. 선물용 초콜릿·초코스틱과자 등 200여종은 정가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마트는 수능 평균 연령대인 10~20대 고객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을 분석해 인기 브랜드 위주로 행사상품을 선정했다. 지난해 초코스틱과자가 매출 1위를 기록한만큼 ‘롯데 뉴진스 빼빼로 기획 5종’을 준비했다. 해당 상품은 스페셜 패키지로 걸그룹 ‘뉴진스’를 활용해 소장 가치를 더했다.

세븐일레븐은 화장품 브랜드 ‘어뮤즈’와 손잡고 협업 상품을 출시하고, 인기 입술제품인 립플러가 들어있는 기획 상품 등을 판매한다.

e커머스 플랫폼, 대형마트 등도 수능과 빼빼로 데이 마케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쿠팡은 오는 14일까지 ‘11·11 데이’ 테마관을 운영한다. 테마관에서는 빼빼

로 럭키박스과 샘플러 6종세트 등을 선보인다. 특히 ‘수능’ 테마관에서는 틱스스텐 보온 도시락, 해피데이 핫팩, 상상앤드 행운의 포춘 초콜릿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마트·슈퍼는 버추얼(가상) 아이돌 ‘플레이브’가 포장에 담긴 빼빼로 2종을 단독 출시하고, 두 개 구매 시 플레이브의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하이마트는 수능 이후 졸업 선물 수요를 고려해 다음 달 노트북과 헤드셋, 키보드 등 정보기술(IT) 가전을 최대 25% 할인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13일까지 빼빼로데이 행사를 전개한다. 빼빼로, 포키 등 막대과자 30여 종은 저렴한 가격대로 내놓고, ‘페레로로쉐’ 7종은 10% 할인한다. 빼빼로데이·수능 행사상품 2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도 증정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요그의 서’ 정식 출시

3D 방치형 수집 RPG 장르

스마일게이트의 게임플랫폼 ‘스마일게이트 스토브’가 중국 개발사 원기스튜디오의 3D 방치형 수집 역할수행게임(RPG) 신작 ‘요그의 서’를 정식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요그의 서’는 게임 이용자들이 영웅을 직접 모집하고 팀을 조합한 뒤, 사악한 괴물을 물리치는 모험을 담아낸 작품이다. 만화 그래픽으로 구현된 영웅 캐릭터 60종이 준비됐으며, 방치형 게임의 장점인 전투 편의성과 캐릭터의 빠른 성장이 특징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각 캐릭터의 역할을 조합해 자유롭게 팀을 꾸릴 수 있다. 게임 속 전장은 무작위로 생성된 관문을 통해 이어지며, 각 전투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SK바이오팜, 4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자체 신약 세노바메이트 매출 증가

SK바이오팜이 4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며, 사상 첫 연간 실적 흑자 전환의 기대를 높였다. 자체 개발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처방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0일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1.2% 성장한 1366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일회성 용역 수익 감소 영향으로 약 25.7%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달성하며 193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자체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

국(FDA) 승인을 받은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매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3분기 미국 매출은 113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약 8%, 전년 동기 대비 약 49.8% 성장했다. 특히 전 분기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직접판매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에 이어, 3분기에도 증가하며 판매비와의 차이가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고정비 상승 최소화 노력과 함께 세노바메이트의 빠른 미국 매출 성장 속도로 인해 앞으로 이러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삼바, ISO ‘37301·27001·27017’ 인증

〈규범준수경영·정보보호관리·클라우드보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첫 인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001’, 클라우드 보안관리체계 ‘ISO 27017’ 등 총 3건의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처음으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받아 준법 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규제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9년 업계 최초로 획득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001’ 인증 및 2022년 획득한 클라우드 보안관리체계 ‘ISO 27017’ 인증을 갱신했다.

글로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에서 ‘ISO 27001’과 ‘ISO 27017’을 모두 획득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글로벌 ISO 국제표준 3종 동시 획득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를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켈리패딩’ 화보 공개

에프엔에프의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브랜드 대표 모델 고윤정과 함께 한 ‘켈리 구스다운 패딩’ 화보(사진)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켈리 구스다운’ 제품군에는 후드에 탈부착할 수 있는 유령산 여우 털 장식과 지퍼와 똑딱이형 이중 여밈 디자인 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발수, 방풍, 생활방수가 가능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했으며, 목 부분에는 벨보아 소재를 적용했다.



/안재선 기자



주제 :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4:00~17:10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의 :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18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파리바게뜨, 순직 소방관 유가족 3000만원 후원

파리바게뜨가 소방의 날을 맞아 순직 소방관 유가족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 3000만원은 지난해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취지로 소방청과 협력해 출시한 ‘빠빠빠빠 출동! 소방차 케이크’ 판매 수익금을 통해 마련했다. /파리바게뜨



CJ그룹, 수영 꿈나무 ‘배움·성장의 장’ 마련

CJ그룹은 지난 9일 서울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수영 유망주들을 위한 배움과 성장의 장, ‘Locker Room with TEAM CJ: Swim to Dream’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수영 꿈나무 25명이 참가했고, 황선우·김우민 등 한국 남자 수영 대표팀 선수들이 총출동했다.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CJ그룹



KT, ‘KIT’ 1기 수료… 디지털 격차 해소 성과공유

KT는 지난 8일 서울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KT 대학생 IT 서포터즈(KIT)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KIT는 KT가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발족한 대학생 교육 봉사단이다. 수료식에서는 KIT의 활동 보고와 성과 발표, 우수 활동팀에 대한 시상 등을 진행했다. /KT



LG생활건강 노사, 연탄 나눔 봉사활동 ‘구슬땀’

LG생활건강은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일대에서 노사가 함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날 LG생활건강 노사는 3개조로 나뉘서 열 다섯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이웃들에게 한 집당 연탄 200장과 생활용품 1세트씩을 전달했다. /LG생활건강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리뉴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11일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를 새롭게 개편해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는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종합해 알려주는 앱이다.

탐방로, 운영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청,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해 공원별 날씨 예보, 주변 관광 정보도 알려준다. /김대환 기자 kdh@

LG U+,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전 부문 석권

‘익시’ 프로젝트 등 AI 경험 확산 디지털 소통 선도기업 역량 입증

LG유플러스가 ‘제17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전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종합대상(장관상)’을 5년 연속 수상하며 디지털 소통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는 국내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소통·마케팅 시상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객소통 지수를 평가한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KICOA)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도 소셜미디어 활용성, 디지털 기반 소통지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종합대상(장관



이학영 국회의원(왼쪽부터), 김희진 LG유플러스 통합브랜드마케팅팀장, 박영락 한국인터넷소통협회장이 지난 7일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상),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정보통신부문 대상, ‘대한민국소통대상’ 정보통신부문 대상,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 콜라보콘텐츠 부문 대상 등 전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LG유플러스는 올 초 AI 전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신규 브랜드 슬

로건 ‘그로쓰 리딩 AX 컴퍼니(Growth Leading AX Company)’를 공개했다. 이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익시(ixi)’를 마케팅 전 영역에서 활용해 고객과 소통하는 ‘익시 프로덕션(IXI Production)’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AI 경

험을 확산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하면 AI가 생성해주는 참여형 이벤트 ‘익시가 그려드립니다’는 3만 5000여명의 고객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 5월에는 국내 최초 AI로만 제작한 TV 광고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익시(IXI)’를 포함한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촬영 장비나 모델, 공간 섭외 없이 광고를 제작했다. 이 광고는 1329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AX 컴퍼니로 도약해 가는 LG유플러스의 모습을 알렸다.

세계 최초 AI월페이퍼 서비스도 선보였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프롬프트(생성형AI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면, AI가 즉석으로 스마트폰 배경화면 이미지를 제작해주는 서비스다. 6월부터 약 3달간 4만여 건의 고객 반응을 달성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기아 EV3, 골든 스티어링휠 어워드 ‘최고의 차’

〈4만 유료 미만〉

충전 주행거리, 공간성 등 고평가

전기차 대중화를 이끄는 기아의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 ‘더 기아 EV3(이하 EV3)’가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기아는 소형 전기 SUV ‘더 기아 EV3’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와 주간지 빌트 암 존탁이 주관하는 ‘2024 골든 스티어링휠 어워드’에서 ‘4만 유로 미만 최고의 차’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골든 스티어링휠 어워드는 1976년부터 시작된 유럽 자동차 상으로, 1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총 78대의 차량을 심사해 14개 카테고리에서 최고의 자동차를 뽑는다. 기아는 독일 내 EV3의 출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을 받아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V3는 유럽(WLTP) 기준 605km의



더 기아 EV3.

1회 충전 주행거리와 넉넉한 공간성, 다양한 편의사양 등을 내세워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우토빌트의 수석 에디터인 로빈 호닉은 “EV3는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로 충분한 주행거리와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며 “차량, 배터리 등에서 7년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한 구매로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

김영갑 세종대 교수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세종대학교는 김영갑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2024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표준화 활동을 통해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큰 유공자로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영갑 교수는 ISO/IEC JTC1 SC41(IoT and Digital Twins)과 SC32(Data Management and Interchange)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김 교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능형 CCTV 프로젝트 그룹의 표준 제·개정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능형 CCTV의 주요 원천기술인 시놉시스 및 영상 암호화 관련 4건의 표준을 제정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lhj@

인사

◆고용노동부 ◇채용 △정책보좌관 안우철

부음

▲ 이시윤씨(전 감사원장·전 헌법재판관) 별세·이광득(광탄고 교장) 향년 81세(사업) 부친상·김자호 이선영씨 시부상·이지원씨(초등교사) 조부상·류성주씨(서강대 교수) 처조부상=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40분. 02-2227-7500

▲ 송용종씨 별세, 송병주(한국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전 한국프로골프협회 전무이사)씨 부친상 =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11일 오전 9시부터 15호),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 조용수씨 별세, 조덕제·석제·윤제(경남신문 함안의령합천본부장)씨 부친상 = 10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진주시 일반성면 선영. 055-249-1700

에코프로, 지역 균형발전 우수사례 ‘특별공로상’

민간기업 유일 수상

에코프로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돼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에코프로는 지난 7일 지방시대위원회 주최로 강원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민간기업은 에코프로가 유일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방 자치 분권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치



지난 7일 지방시대위원회 주최로 강원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왼쪽부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코프로

하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역 인재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포▲향을 철강도시에서 이차전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앵커 역할 ▲글로벌

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참여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높게 인정받았다.

에코프로는 우수사례 성과 발표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본거지로 삼아 지방 교육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역 인재와 함께 성장해 글로벌 하이니켈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에코프로는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지역 인재를 고용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배터리소재 기업으로도 도약했다”며 “지방 소멸 방지 차원에서 기업의 역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오픈기념 '화요' 이벤트

프리미엄 숙성한우·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은
이자카야나무의 패밀리브랜드입니다.

지금, 아래 QR코드를 찍고 나무가든 **회원가입** 하시면
'화요25' 1병을 드립니다.



📅 2024년 11월 30일(토)까지

🍖 고기손님 한정(식사손님 제외) 🍷 테이블 당 1회 🍴 직원 호출 후 진행

문의 02-785-8883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조합임원 공개의무 기한은 서류작성 시점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인 갑은 2019년 8월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10월 30일의 사록을 작성한 다음 11월4일 인터넷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조합장 갑은 이사회를 개최한 8월 30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 조합장 갑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장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15일 기한의 기산 시점은 '서류가 작성된 시점을 의미한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8월30일 이사회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의사록이 작성된 바가 없으므로, 그때로부



유투이미지

터 15일 이내 공개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갑은 의사록이 작성된 10월 30일부터 15일 이내인 11월 4일에 공개했으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조합임원의 공개의무 대상이 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현존하는 서류'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조합임원의 공개의무 위반이 된 다른 사건에서도 "용역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아니하여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면, 그 '용역계약서'는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사건에서 조합장 갑은 이사회를 개최한 3분기 끝나는 달(9월)의 다음 달 15일인 2019년 10월15일까지도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

데 조합임원 등은 위 서류 및 자료에 대해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등에게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위 사건의 원심에서는 위 조항에 따라 조합임원 등은 적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 및 자료 작성을 마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갑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봤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은 조합임원에게 '서면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그 문리적 해석상 서류의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카드할인 혜택, 올해가 마지막?



김지수첩
김정산 (금융부)

11월은 '쇼핑의 달'로 불린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절' 등 할인 행사가 연달아 있다. 대목인 만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백화점은 물론 이커머스 기업 등 유통업체도 관련 마케팅을 펼치면서 분주한 모양새다.

유통업체뿐 아니라 카드업체 또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유통사와 손잡았다. 특정 플랫폼과 카드사가 협업을 단행하면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발급된 신용카드 1억3000만장이다. 1인당 4.4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카드사별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

는 셈이다.

그동안 구매를 망설인 물건이 있다면 절호의 기회다. 카드업체 관계자들 또한 11월 할인은 눈여겨보라고 조언한다. 물가가 오르는 명절과 달리 유통가와 동시 할인을 진행하는 만큼 양질의 물건을 염가에 구매할 수 있어서다. 녀석지 않아도 올해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꿀지 고민중이다.

올해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혜택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에 있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마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동결 혹은 인하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는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 판매비와 관리비 등 유지비용을 줄이면서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 8곳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4조734억원이다. 반면 판매비와 관리 비용은 1조7761억원으로 가맹점 수수료의 43.6%를 차지한다. 올해 가맹점수수료율이 낮아지면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수수료율 조정 여파가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 수익성이 나빠지면 연회비를 높이고 마케팅에 투입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카드업체의 입장이다. 소비 충동을 참아가며 할인 대목을 기다린 '알뜰족' 입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전히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업체에서는 "금융수익 손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자칫 소비자 혜택까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나와야 한다.

/kimsan119@metroseou

오늘의 운세 11월 11일 (음 10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지녀라. 48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60년생 되는 일이 없는 것은 본인의 게으름 탓. 72년생 날씨가 맑아지니 밖으로 힘껏 나가보라. 84년생 새벽 운전 조심함.



37년생 금전 문제로 계산할 일이 생긴다. 49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아랑을 베풀자. 61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73년생 부자가 되려면 타인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야. 85년생 여행할 일 있겠다.



38년생 평생 시기 질투가 따르지만 이겨낸다. 50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62년생 화를 낼수록 자신에게 불이익이다. 74년생 부모는 고생하는데 나는 게으름의 극치이니 한심. 86년생 뿔은 덕으로 문제를 해결.



39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든 시작. 51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63년생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75년생 과음의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 87년생 짧은 생각이 기회를 잃어.



40년생 분노 조절을 해야 실패가 없다. 52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64년생 마음이 울적하나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 76년생 직장에서 호의적인 사람과 논쟁으로 불편을 만들지 않도록. 88년생 술은 판단을 잃게 한다.



41년생 두 가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하자. 53년생 뱀파와의 거래가 있으면 세심히 살펴라. 65년생 재물이 들어오니 기쁜 하루. 77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최선을 다해 기쁜 총계 잡아라. 89년생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42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54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본다. 66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일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다. 78년생 인연을 맺는데 처음보다 끝이 중요. 90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은 쉬어라.



43년생 욕심을 버리면 저절로 복이 온다. 55년생 신용은 평생을 가니 작은 약속도 잘 지켜야 할 것. 67년생 부부간 끝없는 논쟁은 머리로 아프다. 79년생 재물 운이 상승하니 추진해 오던 일이 즐겁게 성사된다. 91년생 마음이 무겁고 울적.



44년생 경거망동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서 행동. 56년생 지켜온 신용으로 인연이 되어 한 단계 상승하는 기회가 온다. 68년생 권태로움에서 탈피하고자 하나 망신살. 80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계약 소식 온다. 92년생 미련이 남는 일이 발생.



45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쉬어 가자. 57년생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결과가 좋다. 69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81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93년생 양보는 기쁜 좋은 일로 연결.



46년생 잘 살펴보면 기사회생(起死回生)이 될 수 있다. 58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70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82년생 급히 뛰다 보면 중도에 포기할 수도. 94년생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것이다.



47년생 새 식구가 들어오니 마음이 흡족. 59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나 가다가 넘어질 수. 71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83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 95년생 나쁜 관계를 일컬어 견원지간이라 했으니 신중함.



김상회의四季 정(情)에 매이지 말길

모든 사람이 배우자 인연이 좋기를 바라지만 연애사 내지는 결혼생활의 복도 뜻대로 되질 않는다. 인연 법이 그런 것을 어찌하겠나? 갈등이 생기거나 잘못된 인연임을 알면 단호히 끊거나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지를 못한다. 그래서 고통을 연장하거나 더 큰 고통을 잉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요즘은 여자들도 자의식이 강해져서인지 예전처럼 순종이나 인내를 미덕으로 아는 시대가 아니라서 대차게 사는 경우가 많다. 가정주부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발각이 나도 담당하기까지 하여 세상 풍속도가 많이 달라져 격세지감을 실감하기도 한다. 상담을 온 67년 정미생 A씨의 경우도 그러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충격과 고통으로 힘들었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아내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했다. 한 살 아래 무신생인 아내는 남편보다 사주가 크고 일주는 괴강이어서 평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이 많았을 터였다. 모르고 몰라도 이런 상대 외에도 남자 인연이 없다 할 수 없는 관살혼잡격(官殺混雜格) 사주인데 지금까지 가정을 이어온 것만 해도 의외였다. 남편은 유약하고 소심한 성품의 신약 사주라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고집과 개성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니 본인의 사주를 탓할 수밖에 없다. 가출한 부인은 분명 집에 돌아올 것이나 또 나갔다가 들어오길 반복할 것이다. 여자가 관살 혼잡한 경우는 내 집 밖의 남자와도 인연이 오래 가질 못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다 칠 십을 넘기면 안정을 찾게 되는 운세이므로 지금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매달리면 더 옳아가는 게 사람의 심리기도 하고 정에 매이면 매일수록 마음에 상처만 더해지니 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5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4		8			
1					4			
	8	4	6	1		9		
2						5		9
		8				7		
3		9						6
		2		6	7	3	1	
		3						8
6		3	5					

결합형 스도쿠

153문제

				8	2			7
3	1			9				
		8	3			4	5	
	4	1				6		7
5		9				1	8	
6		7			4	9		
				5			4	8
	8		9	2				

컬러 스도쿠110

중간 스도쿠 100

7	2	9	6	8	1	9	8
8	6	9	2	7	1	8	2
9	1	8	2	9	8	2	6
9	7	8	1	2	7	6	9
1	2	6	8	9	8	7	9
6	8	9	9	8	7	1	2
2	9	6	8	1	9	7	8
8	9	7	8	2	6	9	1
2	8	1	7	9	2	9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2	8	2	6	9	8	7
8	7	2	2	9	9	8	6	1
8	9	6	7	1	8	2	2	9
6	8	1	9	2	7	6	9	8
7	9	8	7	1	2	9	2	9
2	2	9	6	8	9	1	7	8
9	6	7	1	9	8	8	2	2
2	9	8	9	6	2	7	1	8
1	2	8	2	8	7	9	9	6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로 철거에 서울시민, 대중교통 증편 요구

영등포 교통혼잡 대책 마련 민원
市, 버스증차 대신 버스차로 연장
장애인일자리 사업 유지 목소리도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영등포 로터리 일대 대중교통 증편 운행, 장애인일자리 사업 유지 등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정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온라인 창구 '시장에게 바란다'에 영등포 로터리 철거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최근 접수됐다.

청원자 A씨는 “영등포 로터리 철거로 인한 이용 차선 축소로 차가 밀릴 테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던데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릴 때에 대비해 버스를 증편하거나 배차 간격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영등포 고가 철거와 관련해 시내버스 증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운행 버스를 늘리면 교통량이 증가해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



공사 후 영등포 로터리 조감도.

/서울시

라는 판단에서다. 대신 시는 시내버스의 운행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영등포역 교차로~영등포 로터리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시 버스정책과는 “공사 기간 중 인근 도로로 우회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줄 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유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원인 B씨는 “구청마다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민간업체로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민간업체로 가도 현재 일하는 시간, 급여, 복지 등을 다 똑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시는 현재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장애인일자리 프로젝트를 민간보조사업자가 시행하더라도 근무 시간과 급여 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본 사업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교부 및 집행하고, 각 자치구는 장애인 급여 등이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매년 민간수행기관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국제중 입학 경쟁률 ‘18대 1’… 역대 최고

2009년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 기록
특목·자사고 진학 유리해 경쟁 치열

2025학년도 전국 국제중학교 입학 경쟁률이 평균 17.91대 1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절대 평가인 중학교 내신에서는 학구열이 높은 분위기가 고입에 유리한 데다, 조기 해외 유학 대체 수요까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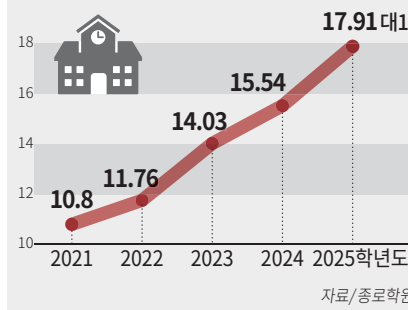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전국 국제중 중대원·영훈·청심·부산국제중에 총 859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7.9대 1을 기록했다. 네 곳 중학교의 총 선발규모는 480명이다. 경상남도 진주 선인국제중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아 제외됐다.

국제중 4곳의 경쟁률은 최근 5년간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021학년도 10.80대 1이던 경쟁률은 ▲2022학년도 11.76대 1 ▲2023학년도 14.03대 1 ▲2024학년도 15.54대 1에 이어 2025학년도 17.91대 1까지 올랐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 대원국제중은 160명 선발에 3803명이 지원해 지난 2009년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인 23.77대 1을 기록했다.

국제중학교 경쟁률 추이

대원·영훈·청심·부산국제중 평균 경쟁률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도 2025학년도 경쟁률 18.39대 1을 나타내며 2009년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심국제중에는 100명 모집에 1839명이 지원했다. 아울러, 영훈국제중이 10.23대 1(전년 8.81대1), 부산국제중이 21.98대 1(전년 20.9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국제중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특목·자사고에 보다 유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제로 이뤄져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 시 일반중에 비해 내신 불이익이 없다. 실제로, 90점 이상(A) 비율은 일반중학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현진 기자 lhj@

용인시, 경안천 산책로 24km 전 구간 연결

처인구 포곡~무현 4.7km 구간 완공
시민 일상 속 안전한 친수공간 될 것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유운교부터 모현읍 왕산리 왕산교 사이에 폭 3m, 길이 4.7km의 경안천 산책로 조성 공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처인구 해곡동부터 모현읍 왕산리 광주시 접경에 이르는 경안천 24km 구간의 하천 산책로가 모두 연결됐다. 왕복으로 하면 마라톤 풀코스(42.195km)까지 소화해 낼 수 있는 산책로가 완성된 것이다.

포곡읍 유운리 유운교부터 모현읍 왕산리 왕산교까지 경안천 주변 4.7km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은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경안천 제방길은 인근의 많은 시민이 산책로로 이용해 왔는데 일부 구간이 단절돼 도로를 이용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이곳에 산책로 조성에서 1~3구간인 포곡읍 유운리 유운교~모현읍 갈담리 531~17번지 2.6km 구간을 2023년까지 완공한 데 이어 이번에 갈담리에서 왕산교에 이르는 2.1km 4구간 공사를 마쳤다.

시는 이번에 조성한 산책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 속 친수공간이 될 것을 기대했다.

/용인(경기)=유진재 기자 yujin@

대세는 ‘K등산’… 관광코스 된 서울 명산

서울 등산관광센터 3명 중 1명 외국인
산행 물품 대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방문객 3명 중 1명이 외국인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는 등산용품 대여, 짐 보관, 탈의실 운영, 산행코스 안내, 등산 체험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 2022년 9월 북한산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고, 올 4월 북악산에 이어 이달 1일 관악산 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센터를 찾은 방문객은 총 4만여명이며, 이

중 약 1만7600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산 센터는 국립공원 초입인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했다. 서울 도심 속 유일한 국립공원이자 구간마다 산세가 가파른 북한산의 특징을 반영해 아이젠, 등산스틱 등 안전한 산행을 위한 장비들을 다양 보유 중이며, 올해에만 1300여건의 물품이 대여됐다. 이외에도 건물 내 조성된 실내 클라이밍장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북악산 센터는 삼청동 내 전통 한옥에 설치됐다. 광화문광장, 경복궁 등 서울 도심을 둘러보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으며, 우비, 토시, 캠핑의자 등 가벼운 산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관악산 센터는 신림선 관악산역 지하 1층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관악산의 모습을 살린 바위를 센터 곳곳에 뒀고, 라운지에는 ‘계곡 물소리’, ‘산의 향기’ 등 오감 자극 요소를 배치했다. 신발 소독기와 의류 관리기도 마련됐다.

센터는 전문가와 함께 산을 오르는 특별 산행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개인·단체 외국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 도심 등산관광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대심도 빗물터널’ 내달 중 착공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조성

서울시는 오는 12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에 조성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

이다.

시는 지난달 30~31일 설계 평가회의를 열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기본설계와 환기 수직구 등 우선 시공분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단독 입찰한 한신공영 컨소시엄(강남역), 대우건설 컨소시엄(도림천),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광화문)을 대상으

로 그동안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의 등을 개최했고, 최종 설계평가를 완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6개월간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VE)와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본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공사에 대한 설계 적격심의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푸틴,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 북러 조약에 서명
▲日연립여당 공명당, 국토교통상 사이토 데쓰오 신임 당대표로 선출

/사진 뉴시스

▲獨 ‘조기총선’ 모드 돌입…제1야당 “총선 1월로 앞당겨라” 압박
▲유엔 “가자지구 사망자 70%가 여성·어린이… 5~9세 사망자 가장 많아



▲미국 정부, TSMC에 첨단 반도체 중국 공급 중단 명령
▲트럼프 ‘SNS 인사’ 시작… “헤일리·폼페이도 기용 안할 것”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m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쿠팡
국내 일자리 창출
8만명 돌파
L1



Life

뷰티업계
럭셔리 제품
역량 집중
L2



“수묵화 수놓은 은실… 새로운 표현으로 전통-현대 잇고파”



새벽을 여는 사람들

장영은 작가

수묵화(水墨畵)는 말 그대로 물과 먹만으로 삼라만상을 그려낸 그림이다. 그러나 농담(濃淡)을 달리한 먹색이 가득하다. 즉 수묵화라고 하면 ‘먹색’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푸른 수묵화’를 그리는 작가가 있다. 장영은 작가의 ‘푸른 수묵화’는 삼라만상을 푸른색으로 표현했다. 여기에 나타나는 ‘푸른색’은 하늘의 푸른색 같기도 하고, 바다의 그것이거나 나무, 풀 등일수도 있다. 그리고 이 ‘푸른 수묵화’에는 빛과 결을 표현하기 위한 은실이 새겨져 있다. 지난 5일 (메트로경제신문)은 장영은 작가의 개인전 ‘빛, 숨, 결 : LIGHT, BREATH, TRACE’이 열리는 서울 은평구 ‘공간루트’에서 그를 만났다. 1993년생의 젊은 작가는 ‘동양화를 기반으로 은빛 바느질 선을 중첩하는 수묵의 변주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표현 연구로 ‘푸른 수묵’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광목천에 발묵, 그리고 은실 자수의 중첩… ‘수묵화의 현대적 재해석’

그의 작품에 대해 짧게 요약하자면, ‘수묵화의 현대적 재해석’이라 할 수 있다. 광목천에 전통 발묵의 형식으로 수묵을 표현하고, 그 위에 빛을 머금은 특성의 은실 자수가 중첩돼 있는 특징이 있다. 장영은 작가가 이같은 작업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장영은 작가는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했다”며 “작품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2016년,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싶어 여러 표현 방법을 연구하다가 ‘자연의 결’을 표현하기 위해 반짝이는 실을 (그림 위에) 바느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묵’의 화면에 반짝이는 ‘빛’의 특성과 부합하는 은실의 재료적 특성은, 시(詩)를 읽을 때 느껴지는 운율감같이 수묵 회화의 평면적, 재료적 한계를 깨기 위한 표현 기법”이라고 부연했다.

은실을 이용한 바느질선은 빛, 잎맥, 꽃잎의 맥, 빛줄기, 이슬, 이파리의 상처에 비치는 반짝임 등 다양한 것을 표현한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장영은 작가는 “작품의 주제인 빛과 같이 은실이 반짝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제인 빛과 특성이 부합되어 은실을 사용하게 됐다”며 “그림이 빛을 받으면 바느질감이 빛나면서 그 화면 안에서 생동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색으로 나뉜다. 먹으로 표현한 현(玄)색(먹색)과 따뜻한 색감의 푸른색. 수묵화의 먹색



장영은 작가가 본인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빛, 숨, 결 설치물 일부.



장영은 작가 개인전 작품들.



‘푸른 수묵화’ 그리는 작가 ‘빛, 숨, 결’ 주제 개인전 수묵화에 은실 새겨 자연 표현… ‘현대적 재해석’ 자연서 영감 받은 푸른색, 작가만의 시그니처 컬러 수정 까다로운 전통 수묵… 잔잔한 감동이 ‘매력’ 과거-현재-미래 잇는 수묵 표현법 연구 계속할 것

은 단 하나의 색만으로 만물을 표현해 낸다. 자연의 모든 색이 들어간 것이 먹 색인 셈이다.

‘푸른색’하면 많은 이들은 ‘코발트 블루’와 같이 눈이 시린 파란색을 생각한다. 그러나 장영은 작가가 표현해낸 푸른색은 따뜻한 색감으로, 차라리 옥빛에 가깝다.

그의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옥빛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는 ‘수묵화의 먹색’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영은 작가는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하늘과 바다, 산의 빛깔을 품고 있는 자연이 함축된 색”이라고 말했다. 자연의 모든 푸른색을 표현한 것이 ‘푸른 수묵화’이며, 옥빛은 작가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작업을 진행할 때 가장 영감을 많이 받는 대상을 물었다. 장영은 작가는 ‘빛, 자연, 그리고 일상과 자연 속 결의 요소’라고 대답했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을 통해 가장 많이 표현된 소재 역시 ‘빛’이라고 한다.

그는 “직관적으로 ‘빛’을 표현한 작업도 있지만, ‘빛’이라는 주제를 늘 은유적으로 모든 작업에 담아냈다”면서 “이번 전시 주제도 ‘빛, 숨, 결’인데, 빛이나 숨은 일상적으로 있기에, 인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어두울 때 ‘빛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숨을 쉬기 어려울 때 ‘숨’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나. 일상적이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빛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어렵다. 빛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사물을 인지할 수 있고 만물은 생명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한다”며 “‘빛’이란 본인에게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심미적 연구 대상으로, ‘빛’이 존재하기에 ‘자연’과 인간은 세상에 존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묵의 정취 기반으로 변화 시도

장영은 작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간 루트’에서 ‘빛, 숨, 결’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모든 작품이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나왔겠지만, 그래도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작품을 꼽아달라고 했다. 그는 파노라마처럼 펼쳐낸 약 8m의 ‘빛, 숨, 결 2024’ 대형 수묵 작업을 꼽았다.

그 이유로는 “공간에 맞아 떨어져야 하고, 각기 다른 조각끼리의 조화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단조롭지 않도록 작업해야 했다”면서 “그 안에서 전시 주제인 ‘빛, 숨, 결’ 요소들을 잘 나타내야 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작업은 관람하는 각도에 따라 작가가 관조해 온 순간의 잔상들에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의도했다고 한다.

그는 “먹은 물에 번지며 스미는 물성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 예민한 작업 재료라 작업 중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지만 그만큼 일률적이지 않고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매력이 있다”면서 “또 그 특성 때문에 덧칠해 기존 형상을 숨기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재료다. 숙달됐다고 해도 연구의 자세와 긴장을 놓을 수 없기에 붓을 들 때마다 늘 새롭고 신중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작업에 임한다”고 말했다.

번져서 표현하는 기법은 숙달로 인해 체화되는 것인데, 긴장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장영은 작가는 “점 하나 찍는 작업이 쉽게 느껴지지만, 그 일을 20년씩 일률적으로 하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라며 “작업하면서 개념적인 면을 한번씩 더 생각하며, 한가지 일을 작업이 아니라 매일 2~30년씩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존경할 만한 일이라는 걸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처럼 수정도 어렵고 까다로운 전통 수묵의 세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학생 시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문장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1993년생의 젊은 작가의 목표를 물었다. 장영은 작가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동시대를 살아가는 90년대생의 젊은 작가인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싶었다”며 “수묵이 지닌 고유의 담박한 정취를 지키면서도 재료적 한계에 국한되지 않도록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목적이며, 수묵 작품과 푸른 수묵을 함께 선보이며 편안하고 신선한 느낌으로 달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엔 ‘90년대생인 작가가, 동양화와 공예의 장르적 경계에 서서 얼마만큼 동시대적으로 저변을 확장하고 펼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지니게 됐다”면서 “과거-현재-미래를 이어 저변의 확장이 이뤄져 나가길 소망하며 본인 역시 수묵의 동시대적 표현법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오래도록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대한체육회장 자녀 친구 부정채용 등 적발...이기홍 등 8명 수사의뢰
▲황희찬 팀 훈련 복귀했지만 결장...울버햄튼은 첫 승리 /사진 뉴스스

▲김아림, 롯데 챔피언십 제패 ‘와이어 투와이어’ 우승
▲펜싱 여자 사브르 전하영 시즌 첫 월드 컵서 개인전 금



▲EPL 맨시티, 18년 만에 공식전 4연패...리버풀과 격차 벌여져
▲롯데, 마무리 투수 김원중과 FA 계약 체결...4년 최대 54억원 /사진 뉴스스